

최 남 숙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노인의 생활특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임 창 희

노인의 생활특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최 남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임 창 희

인 준 서

임창희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현대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로 급변화하고 특히 과학문명과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될 노인인구가 심각한 사회문제의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생활특성에 따라 고독감과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조사대상자는 총 202명이었다. 응답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t-검증, 분산분석(one-way ANOVA),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자료는 SPSS PC Program(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 Ver 1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를 상실했을 경우, 남자노인은 여자노인 보다 더 고독감을 많이 느끼고, 소일 여가활동에만 활발하게 참여를 하였으며, 성인자녀와의 결속도에는 무배우자 여자노인이 남자노인 보다 (애정적, 기능적, 가치관) 결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의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독감도 같이 증가하였고, 무배우자 노인은 60대에 가까운 노인일수록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서 유배우자

노인은 종교 및 사회 여가활동과 소일 여가활동이 80대 고령의 노인일수록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었고, 무배우자 노인은 종교 및 사회 여가활동과 소일 여가활동이 60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 모두 60대 노인의 경우 미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배우자 독거노인은 자녀동거 노인 보다 고독감이 훨씬 높았고, 무배우자 노인의 자녀동거 노인은 (애정적, 기능적, 규범적)결속도가 독거노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은 유배우자 노인이 배우자와 단둘이 동거하는 경우에 종교 및 사회 여가활동의 참여가 활발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에 소일 여가활동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이 독거일 때 소일 여가활동에 참여가 높았고 가족중심과 종교 및 사회 여가활동은 자녀와 동거하는 무배우자 노인이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의 경우 자녀와 동거할 때 독거노인 보다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고독감이 증가하였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자녀와의 결속도와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유배우자 노인은 소일 여가활동에서만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참여도가 높았고, 그 외 5영역(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 건강)의 여가활동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고독감을 덜 느끼는 것은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유배우자 노인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무배우자 노인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가치

관)결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서 유배우자 노인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소일 여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배우자 노인은 종교가 없는 경우 소일 여가활동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생활 만족도와 전체 생활만족도에서만 높다고 보고되었으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생활만족도와 전체 생활만족도 뿐 아니라 과거생활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유배우자와 무배우자 노인은 월소득이 적을수록 고독감이 증가하였고, 소득이 많을수록 유배우자 노인은 (애정적, 기능적, 규범적)결속도가 높았고, 무배우자 노인은 (애정적, 가치관)결속도가 높았다.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유배우자 노인은 (자기개발, 가족중심, 사교오락, 건강)여가활동에 월소득이 많을수록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일 여가활동은 적을수록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은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건강)여가활동에 월소득이 많을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은 월소득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유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전체 생활만족도에는 소득, 고독감, 사교오락 여가활동과 소일 여가활동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소일 여가활동을 적게 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의 과거 생활만족도에는 소득이 많을수록 소일 여가활동을 적게 할수록 과거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의 현재 생활만족도에는 소득이 많을수록,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사교오락 여가활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일 여가활동은 소극적 참여할 때 현재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들의 미래 생활만족도에는 60대의 노인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소일 여가활동을 적게 할 때에 유배우자 노인의 미래 생활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배우자의 전체 생활만족도에는 독거가 아닌 자녀와 동거를 할 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일수록, 성인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높을수록 전체 생활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무배우자 노인의 과거생활만족도는 고연령일수록,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높을수록, 소일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과거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의 현재 생활만족도에는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미래 생활만족도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일수록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성인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고독감으로 노인 누구에게나 오는 보편적이면서 가장 큰 노인의 심리적 문제라 생각된다. 유배우자 노인에게는 심리적인 변인보다는 물질적 측면의 소득 변인이라든지 활동적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 변인이었고, 무배우자 노인에게는 자녀와의 동거와 자녀와의 결속도가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배우자와의 상실로 인하여 자녀에게 기대감이 커짐으로서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노년기의 일상생활에 있어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인간의 생리화학적 특성에서 볼 때 배우자 상실의 기회가 매우 높은 시기인 만큼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 노인의 생활만

족도에 (사회인구학적 변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독립 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봄으로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에 근거하여 노인의 생활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남자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형식적인 충족의 일치감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 지표인 생활만족에 대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 성인지적 관점(Sex-recognized Perspective)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경제적인 여건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강력한 영향변인으로 노인들을 위한 공적부조와 연금개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 등 다각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고, 우리나라 노인복지문제는 그들이 살아온 삶의 특수성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문화적 재규정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장된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지식재충전의 기회는 절실하며,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평균수명연장과 고령화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평생교육체계가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대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동안 TV를 보면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가 노년기 여가활

등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노인 대상의 전문 TV 채널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한 편이다. 이에 노인이 즐길 수 있는 교양적이며 보람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채널 신설이 요망된다. 또한, TV라는 매체를 통해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고, 나아가서 적극적이고 동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욕구 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흥미롭고 다채로운 여가활동을 개발해야 하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다양한 여가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이론적 배경	6
1. 노인의 생활만족도	6
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고찰	9
3. 노인의 생활만족도 관련 이론	11
1) 현대화 이론 (Modernization Theory of Aging)	11
2) 교환이론 (Exchange Theory)	13
3) 활동이론 (Activity Theory)	16
4.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17
1) 사회인구학적변인	18
(1) 성별	18
(2) 연령	19
(3) 동거유형	20
(4) 결혼상태 (배우자 유무)	21
(5) 교육수준	22
(6) 종교	23
(7) 월소득	24
2) 고독감	25
3)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29
4) 노인의 여가활동	31

III. 연구방법	33
1. 연구문제.....	33
2. 조사도구의 구성	33
1) 사회인구학적 변인	34
2) 고독감	35
3)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35
4) 조사대상자의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요인분석	36
5) 여가활동	38
6) 생활만족도	39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40
4. 기초자료 분석	4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41
2) 조사대상자의 고독감	45
3) 조사대상자의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45
4) 조사대상자의 여가활동	46
5)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	48
IV. 결과 및 해석	50
1.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유무에 따른 일반적 사항	50
1)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일반적 사항	50
2)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 가 활동, 생활만족도	52
2. 노인의 생활특성 차이분석 - 유배우자 중심으로	55
1) 유배우자 노인의 성별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 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55

2) 유배우자 노인의 연령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56
3) 유배우자 노인의 동거유형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 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59
4) 유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 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60
5) 유배우자 노인의 종교유무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 활동 차이검증	63
6) 유배우자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 활동, 생활만족도 차이검증	65
3. 노인의 생활특성 차이분석 - 무배우자 중심으로	68
1) 무배우자 노인의 성별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 차이검증	68
2) 무배우자 노인의 연령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70
3) 무배우자 노인의 동거유형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 활동, 생활만족도 차이검증	72
4) 무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 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74
5) 무배우자 노인의 종교유무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 활동, 생활만족도 차이검증	77
6) 무배우자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 활동, 생활만족도 차이검증	79
4. 배우자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82

V. 결론 및 제언 88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2- 1> 고독의 정의	27
<표2- 2> 고독의 원인	27
<표2- 3> 고독의 분류	28
<표3- 1>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요인 구성변인	37
<표3- 2> 여가활동유형의 구성내용	38
<표3-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42
<표3- 4> 조사대상자의 고독감	45
<표3- 5> 조사대상자의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 기능적 결속도, 규범적 결속도, 가치관 결속도	46
<표3- 6> 조사대상자의 유형별 여가활동실태	47
<표3- 7> 조사대상자의 유형별 여가활동	48
<표3- 8>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	49
<표4- 1> 배우자 유무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	51
<표4- 2> 조사대상자의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 도	53
<표4- 3> 유배우자 노인의 성별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 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56
<표4- 4> 유배우자 노인의 연령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 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58
<표4- 5> 유배우자 노인의 동거유형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 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60
<표4- 6> 유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 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62

<표4- 7> 유배우자 노인의 종교유무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64
<표4- 8> 유배우자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66
<표4- 9> 무배우자 노인의 성별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69
<표4- 10> 무배우자 노인의 연령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71
<표4- 11> 무배우자 노인의 동거유형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74
<표4- 12> 무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75
<표4- 13> 무배우자 노인의 종교유무에 따른 고독감과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의 차이검증	78
<표4- 14> 무배우자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80
<표4- 15> 유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 관련 변인 영향력	83
<표4- 16> 무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 관련 변인 영향력	86

I. 서 론

현대사회가 고도로 첨단 산업화 되어감에 따라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해 노년 인구가 증가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를 맞이하게 되므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간의 노화는 우리 삶의 필연적인 과정이며, 노인 문제는 단순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이다.

UN은 노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을 초과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을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 또는 후기 고령화사회(post-aged society)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세 이상 장수(長壽) 노인은 2003년 7월 말 187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년 뒤인 2019년에는 14.1%로 높아져 “고령사회”가 되고 다시 7년 뒤인 2026년에는 23.1%로 “초(超)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통계가 비교 가능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이다(보건복지부, 통계정보. 200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에는 프랑스(1864년→1979년)가 115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미국은(1942년→2013년) 71년, 이탈리아는(1927년→1988년) 61년 걸렸다. 영국은(1929년 → 1976년) 47년, 독일(1932→ 1972년) 40년, 일본은(1970년→ 1994년)24년, 우리나라는(2000년→ 2019년)19년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고령사회로 진입되는 속도이다(매경ECONOMY, 제1153호).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인에 관한 연구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이처럼 한국의 인구 구조가 급속도로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1980년에는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인 "노년부양비"가 16.3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8.6명으로 낮아졌다. 또 2030년에는 2.8명으로 더욱 줄어 한국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사회적 부담은 무거워질 것으로 우려되어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잠재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통계청, 2003).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은 빈곤사회에서 청장년층을 보냈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IMF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기 퇴직, 명예퇴직의 이름으로 서둘러 사회를 은퇴한 노인들은 사회·경제적 역할상실과 지위하락으로 사회적 유대감 상실 및 사회·심리적 부적응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고독감과 소외감을 가져다주게 되어 생활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노인들의 경제적 불안정을 심각한 이슈로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 일자리의 역할상실에서 오는 수입의 절감으로 인한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심리적인 의존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에는 노인 자살자가 전체 자살자의 19.7%를 차지했으나, 2003년에는 28%에 달해 자살하는 사람 중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61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소외, 자살과 같은 문제가 보다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연금 등 노후복지제도가 미비한데다 정부의 노인복지예산도 터무니없이 부족해 노인들이 사회적인 관심부족이나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문화일보, 2004).

현 세대의 노인들은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온 세대이기에 여가의 활용과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길어진 노년기의 여가활용은 생

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의 사회·경제·문화적 변화가 전통적인 가족관과 가치관의 변모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과거의 가족형태는 부모를 모시고 부양하는 것에 당연시 되어왔던 것이 사회변화로 인하여 동거유형은 노인부부의 단독동거, 독거의 동거유형이 늘어나게 되었다. 노인의 자녀와의 동·별거는 교육, 경제력 등의 개인적 특성 변인에 따라 달라진다. 즉 노인들은 경제적 능력이나 건강의 측면에서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있는 노인들은 세대간 별거를 선호하고 노인의 연령이 적을수록, 결혼상태에서 유배자일 경우 자녀와의 별거를 희망하였고(이가옥 등, 1994), Eu(1992)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자녀와 별거하여 독립적인 거주형태를 취한다고 하였다(유성호, 1996, 재인용).

결혼상태에 따라 노인들은 사별을 하게되면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가옥 등, 1994). 의존성이 증가하는 노년기에 특히 배우자에 대한 상호의존성이 중요시되는 시기에 배우자의 사별은 비록 노년기에 경험해야 하는 규범적인 사건일지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며 심각한 절망과 고독을 수반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에서 유배우자 노인들이 무배우자 노인들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여(장현·이철우, 1996; 홍숙자, 1992), 배우자유무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 미칠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동거유형과 배우자유무와 함께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결속도는 많은 연구들에서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접촉, 경제적, 신체적 상호원조 등의 객관적 상호작용이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병은, 1990; 최정혜, 1992), 가치관 일치나 애정적 결속 등의 주관적 결속이 객관적 결속보다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더 중요하다고 했고(신효식, 1993), 노인이 기혼 자녀와의 유대관

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진다(김종숙, 19870). 노령화에 따라 사회적활동이 감소하는 노부모는 자녀와의 결속도를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며(Medly, 1976),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노인의 주관적 복지감과 관계가 적은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복지가 성인자녀와의 유대나 도움에 상당히 달려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노인들이 과거의 노인세대와 매우 다른 특성은 고령화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준의 향상과 조기퇴직으로 인한 경제력과 지적능력 및 건강을 모두 갖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질적인 변화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노인들은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의존적이고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젊은이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으며, 자신들의 삶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장경섭,2001; 최성재 외, 2002).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문제의 발생원인을 사회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으려는 노력 외에 그 주체인 노인으로부터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인을 규명해 보려는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 노인의 생활만족은 문화적, 환경적 배경을 고려한 조건들의 광범위한 범주 안에서 만족스럽게 개발될 수 있다는 관점이 필요하고,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적, 가정적, 심리적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배우자유무에 따른 노인의 생활특성을 살펴보고,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심리적인 고독감과 성인자녀와의 결

속도, 여가활동이 과거, 현재, 미래, 전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봄으로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내용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의 생활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유배우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이 과거, 현재, 미래, 전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무배우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이 과거, 현재, 미래, 전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넷째, 배우자유무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변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이 과거, 현재, 미래, 전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생활만족도

노화(Aging)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세포, 조직, 기관조직, 또는 유기체 전체에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Beaver, 1983). 노화는 사회적 관계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며 노년기에 수반하여 변화하게 되는 상황은 지위와 역할의 변화, 자녀의 독립, 경제적 의존성, 신체적 의존성, 생활환경의 변화 등이 있다. 그러므로 노화되어 가는 인간으로서 끝없는 고통과 공허의 경험을 극복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이다(오현숙, 2003).

노년기는 인간발달의 마지막 단계로서 여러 가지의 퇴화와 종말을 경험하게 되는 만큼 성숙한 대응태도와 적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노인이 갖는 생활만족도는 노인에게 있어서 노화되어 가는 현실에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태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성공적인 노화’의 지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노화란 장기간에 걸친 가치관과 자아개념에 의해서 형성되는 한 개인의 복잡한 실체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한 개인이 노화되어 가는 현실에 적응해가며 자신의 생애를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오현숙, 2003).

학문적인 측면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장현 · 이철우, 1996). 성공적인 노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생활만족도가 성공적인 노화의 주요 종속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Rowe와 Kahn(1997)은 장애를 피하고, 육체적인 기능을 유지하며,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활동의 추구를 통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증가 등이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를 위한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노년기 생활의 전반적인 복지 목표로 생활만족도의 개념이 일반화 된 것은 Havighurst · Neugarten · Tobin 등의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을 검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생활만족 척도(Life Satisfaction Index)를 사용하게 된 이후부터이다(서말희 · 유가효, 1999; 정혜정 등, 2000).

생활만족이란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Neugarten(1961)에 의하면 성공적인 노화의 귀결로서 얻어지는 심리적인 안정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일상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긍정적인 자아관념을 가지고 자신의 현재 약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Kalish(1975)는 생활만족도를 자신의 생애를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주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잘 적응하여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노년기 생활의 전반적인 복지 목표로 생활만족도의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Havighurst · Neugarten · Tobin(1968)은 노인의 삶의 만족은 확실적인 노인의 조건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인 자신의 주어진 특성과 그 물리적 · 사회적 환경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윤진(1982)은 노인들의 심리적 적응, 정신건강의 수준, 심리적 행복과 복지상태 등 ‘노년기 삶의 질’ 연구를 위해 MUNSH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cale of Happiness)형태의 생활 만족도 척도를 국내 최초로 제작했다(정혜정 외, 2000).

이효재 (1979)등이 생활 만족도 개념을 정의한 이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 만족도 개념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적어도 주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영상을 갖고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이형하, 2000).

홍순혜(1984)는 노인 생활만족도를 노인이 관련되어 있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노인의 자신의 과거,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하여 갖는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후 최성재 (1986)의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는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라고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는 한국형 생활만족도 척도를 개발했다.

생활만족도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즉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생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말한다(한국노년학, 2000).

이상과 같이 생활만족도의 개념에 관한 논의 및 정의를 살펴보면 개인에게 행복을 부여하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주관적인 안녕감, 만족은 사회적, 철학적, 심리적 측면에서 각기 표현을 달리했을 뿐 같은 개념이며,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생활, 그에 대한 만족 또는 행복에 대한 개인자신의 평가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인 정서의 우세성과 생활 중에 경험하는 신체, 정신, 사회, 경제측면에 대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실상 인간은 자신의 인생 주기 중 어느 한 시기 즉, 아동기, 청소년기, 중년기에만 높은 '삶의 질' 수준을 향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결국 노년기에 이르러 지난 일생을 회고해 볼 때,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만이 그의 인생은 성공적일 수 있고 만족한 일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의 개념을 자신의 삶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고 과거를 비롯하여 현재에 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만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고찰

노인이 산업사회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노년기를 만족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노인의 생활만족이라는 개념이 1961년 Neugarten, Havinghurst 및 Tobin에 의해 일반화 되면서부터 생활만족도에 대한 검증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으며, 그것은 노년학 연구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최성재, 1986).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신체 및 정신건강 수준, 경제활동 및 경제수준, 여가활용, 사회적 관계 등의 다양한 요인이 노년기의 삶의 질 혹은 생활만족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으로 성, 연령, 건강, 교육수준, 직업이나 월소득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이철우 외, 1996; 장상희, 1983; Gurin et al, 1960; Liang, 1982; Okun & George, 1984), 심리학적으로는

노인의 성격이나 정서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길, 1994; 정인숙, 2000; Diener & Diener, 1995; Eid & Diener, 1998).

Botner와 Hultisch(1970)는 인구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였는데 인구학적 요인보다 심리학적 요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Chatfield(1977)와 Kalish(1975)는 경제적 요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Cutler(1973)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종교, 사회모임, 결혼, 친구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노인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우복(1993)의 연구에서는 사회교육 참여, 건강상태, 사회단체 참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보고하였으며, 김종숙(1987)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 사회적 지위, 자녀유대관계, 사회활동 등을 들고 있다.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수준, 신앙심은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나이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성(性)이나 나이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있다(김태현, 1986; Ling, 1982; Palmore and Kivett, 1979).

김수옥, 박영주(2000)의 최근 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직업, 가족형태, 교육정도, 종교가 삶의 질과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이 없는 것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이, 홀로사는 것 보다는 동거인이 있는 노인이, 그리고 종교를 가진 노인이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순혜(1984)의 연구에서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과 자주 만나 활동

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철진(2000)의 연구에서도 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활동 참여도, 건강상태, 재산상속 완료 여부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수현(1987)은 도시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크다고 하였으며, 서미경(1990)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부양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한편 고승덕(1996)의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를 나타내는 삶의 질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들로서, 종교유무, 배우자유무, 교육정도, 가족형태, 육체적 건강, 생활활력, 자부심, 자아존중감, 실패감, 열등감, 여가활동 여부, 직업유무 등을 보고하고 있다.

3. 노인의 생활만족도 관련 이론

1) 현대화 이론 (Modernization Theory of Aging)

Cowgill & Holms(1972)의 현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은 즉,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이 거시적·구조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회구조의 변화를 산업화 및 현대화로 보고 노인의 지위 및 역할 변화를 진보론적으로 설명한다.

현대화는 보건 및 의료기술의 발전, 생산기술의 발전, 대중교육의 확대, 도시화를 핵심 요인으로 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현대화는 불가피한 것이며 현대화의 요인들이 인과적으로 다른 요인들을 유발시켜 노인의 지위를 하락시키게 된다. 즉, 문명

이 발달되지 않은 전통사회 구조에서의 노인의 지위는 절대적이지만 사회가 현대화 될수록 노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현대화 현상들을 나타내는 요인들은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 기술(medical technology)의 발전은 사망률을 감소시켜 노인인구 수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키고, 노인 수의 증가는 노령인구가 많아져 직업적 경쟁에서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퇴직을 앞당겨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 퇴직은 역할상실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사망률의 감소는 평균수명을 연장시키고, 따라서 노령기의 여가시간을 연장시키고 있다. 결국 보건의료 기술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되, 역할이 상실되고 여가활동도 뚜렷하게 없는 역할상실과 여가 시간활용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둘째, 경제적 생산기술(industrial technology)의 발전은 노동력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고령자의 직업기술이 청·장년층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하게 되어 생산 현장에서 밀려나는 퇴직을 감수하게 된다. 퇴직을 수입의 감소와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며, 감소된 수입으로 퇴직 후 신체적 노화와 축진되는 건강 약화와 질병은 감소된 수입 때문에 충분한 의료진료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셋째, 보건의료 기술과 기술의 발전은 출생률을 감소시켜 노인인구 비율을 높게 만들고 국가적으로 볼 때 노인부양자지수를 높인다. 또한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은 모자보건관리 여건을 향상시켜 출산력(출산하는 자녀 수)을 감소시킨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생산기술 발전과 현대 산업화는 농업의 쇠퇴, 그리고 여성의 직장 진출 증가의 초래 및 핵가족화 현상을 가속화시킨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을 노인이 가족으로부터 간호보호를 받는 것도 어렵게 되는 건강보호의 문제를 발생 시키게 된다. 즉, 보건의료 기술과 생산기술 발전 효과가 부양할 자녀수를 감소시키고, 도시화

로 인하여 농촌의 인구가 직업을 찾아 도시로 이주하여 노부모의 거주지역과 분리된다. 이로 말미암아 노인들은 자녀와의 상호교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부모자식간의 거리감을 유발하여 노인의 지위가 더욱 하락하게 된다.

넷째, 교육의 대중화로 인한 교육기회의 확산은 자녀세대가 교육을 많이 받게 됨으로써 부모세대보다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대화도 어렵게 되어 실제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되는 심리사회적 소외와 고립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모와의 지적 분리를 촉진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에게 긴 여가시간, 역할상실, 수입절감, 건강의 약화, 부양 및 보호의 문제,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를 야기시킨다(Cowgill & Holms, 1972).

Parsons(1964)에 의하면, 현대화는 보편적이며 구조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과정으로, 사회는 이 과정을 통해서 행정적 관료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합리적이며 과학적 세계관을 지향해 나가며, 이것들이 사회적 통합과 효율성을 배양시킨다고 보았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사회의 가치관을 효율과 능률로 환원시켜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그들의 경제적 공헌도에 따라 평가되고 보상받게 된다(Hendricks & Leedham, 1992).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론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연구들에 따르면 노인들의 세력 및 역할상실은 정보조정, 상실, 생산수단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러자원의 상실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여진다(Hendricks & Leedham, 1992).

2) 교환이론 (Exchange Theory)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은 경제학의 공리주의(utility theory)와 심리

학의 행동주의(behavior theory)에 영향을 받아 Homans(1961)에 의해 사회적 행동의 기초형태를 설명하고자 제시되었다. 교환(交換)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보상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행동 혹은 인간관계를 택하게 된다. 즉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모든 인간관계 혹은 사회적 행동은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환적인 활동”으로서 사람들은 서로간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이익 혹은 보상이 교환되어져야 사회적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자아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역할기대와 이익에 대한 가치는 관계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역할에서 오는 결과나 보상은 부여되거나, 고정되거나,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고 협상과 교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Homans(1958)는 인간의 상호작용을 본질적으로 보상과 대가의 교환으로 보았으며,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은 바로 보상에 대한 욕구 때문이며 행동을 억제하는 것은 대가나 징벌을 회피하려는 욕구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특히 교환이론에서 제시하는 기본명제로는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보상이 자주 주어지면 질수록 그 행위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은 커진다는 성공명제, 개인이 행한 어떤 행위의 결과가 그에게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행위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가치명제, 현재의 자극이 과거와 유사할수록 개인은 과거와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자극명제가 있다. 그리고 개인이 기대한 것보다 기대 이상의 보상이 주어질 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인정명제가 있다(최재현, 1986 재인용)

교환주의적 시각에 의하면 개인 간, 집단 및 개인과 집단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당사자 간에 자원을 주고받는 관계로 보고, 사회는 이러한 교환관계가 어떤 일정한 형태로 유형화된 것으로 본다(최일섭·최성

재,1996). 즉 교환이론은 인간은 대인관계에서의 물리적 존재라는 가정 하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자원교환이 균형을 이루고 자신과 상대방의 보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때 유지된다고 본다(김승권, 1990).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환이론에서의 공통적인 기본개념은 보상, 대가, 교환자원 등이다. 즉 보상은 개인에게 주는 만족감, 기쁨 등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개념을 말하며, 대가는 특정 상황을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시간, 노력, 돈, 지위관계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교환자원은 상대방의 욕구나 목표달성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개념 중 자원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자원이론이다. 자원이론이란 개인이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원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물질자원이 포함되며, 후자의 경우 심리·내적인 감정 및 다양한 서비스 같은 인적자원이 포함된다(가족학연구의 이론적 접근, 1993).

이상의 두 이론인 교환이론과 자원이론을 함께 살펴 본 이론이 바로 교환자원이론이다. 즉, 개인이 보다 많은 자원을 가지면 보다 큰 보상을 받으며 개인이 보상을 얻기 위해 대가로 지불하는 이용 가능한 모든 것들은 결국 자원의 형태로 투입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교환자원이론에서 자원은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교역할을 할 뿐 아니라 노인이 어떠한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서 그들의 보상 정도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3) 활동이론 (Activity Theory)

Havighurst & Albrecht(1953)는 생물학적 측면과 건강의 불가피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노인은 근본적으로 중년기와 다름없는 심리적 및 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사회적 활동의 참여정도와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이 집단활동과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와 같은 욕구의 충족은 강제적인 퇴직이나 건강의 저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다.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활동참여가 제약을 받으면 자아평가에 위기를 초래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로 인하여 결국은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 또는 사회적 만족감이 낮아지게 된다.

활동이론(Havighurst & Albrecht, 1953)에 의하면 노인도 자신의 신체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회, 가정의 활동에 참여하면 노인 자신의 정서, 삶의 만족도, 체력관리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노동력의 일부를 담당하여 국가적으로 사회정화, 규범확립, 노동생산성 향상 이점을 가져온다.

Lemon과 그의 동료(1972)는 개인의 자아개념(self-concept)을 재확인하는 데 필요한 역할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활동이며, 활동이 친밀하고 빈번할수록 역할지지는 더욱 구체적으로 확실해 진다고 하였다. 역할지지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은 생활만족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상징적 상호 작용주의적 관점에서 활동은 구체적인 지위에 따른 역할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의미를 부여하고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며,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닌 의미 있고 목적 있는 대인관계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활동이론에 의하면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또한 친밀한 활동을 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이 유지되므로(Knapp,1976), 노령기에도 많은 사회적 관계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령으로 인해 상실된 역할 활동을 대치할 만한 다른 활동에의 참여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사회와 노인간의 상호작용이란 입장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사회구조 안에서의 노인들의 지위와 이에 결부된 사회적 역할 및 활동, 노화와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 즉,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위에도 변화가 초래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에 기초를 두고 사회 · 심리적 이론에서와 같이 노인은 자발적으로 완전히 사회적 관계를 끊을 때까지 적절한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생활의 질,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는데 인위적인 사회제도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고립감, 무력감으로 인하여 생활만족도가 떨어진다(Maddox, 1968). 따라서 이와 같은 쇠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직 남아 있는 잔여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노인의 활동을 증가시켜주는 방법이 가능하며 특히, 퇴직으로 인하여 상실된 역할활동을 대치할 만한 다른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4.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뿐 만 아니라 국가

나 사회의 노인에 대한 관심, 가치, 태도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종숙, 1987; 손화희, 1998; 이인정, 1999 ; 조황숙· 조병은. 2000). 즉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의 생활특성과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인 고독감, 가족관계에서 오는 배우자유무와 자녀와의 결속도, 활동적인 측면에서의 여가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인구학적변인

(1) 성별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과 관련된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일관성 있는 연구가 나타나 있지 않다. 예를들면, 성별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Liang, 1982; 김태현,1986; 김종숙,1987)가 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들은 노년기에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와 자녀들이 분가한 후에 공허상태, 즉 빈 둥우리(the empty nest) 현상을 통해서 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받게되며, 남성은 퇴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김종숙,1986).

반면,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Spreitzer & Syynder,1974; Atchley, 1975;김행자; 김명자,1982 ; 장상희, 1983 ; 김춘택, 1997; 김철진, 2000)도 있다. 여기서 여성노인이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은 성 역할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활동 이론의 측면에서 생활만족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2) 연령

연령은 다양한 역할에 사람을 할당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역할이 다양화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지 않게 보상되거나 가치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재인, 1987).

박충선(1990)은 노령일수록 상대적으로 노년기 준비기간이 길어 적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연령과 생활만족도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송정선,1996). 그러나 Cutler(1979)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종교, 사회모임, 결혼, 친구 등이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는 반면 건강이나 가족, 취미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노인의 연령별 생활만족감 수준의 차이는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노인의 사회활동 이론의 관점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가정적으로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연구(최외선, 1989)와 연령의 증가는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Diener & Suh,1998; 김춘택, 1987)도 있다. 이 연구는 연령이 직접적으로 노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 적응과 관련된다고 보거나(김수연, 1987), 연령이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은퇴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 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Creecy, 1985).

그 외 연령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는 조완규(1994), 고승적(1995)등이 있으며, 연령과 생활만족도는 반비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김한곤(1989), 김춘택(1997)의 연구에 의하면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동거유형

노인들의 동거유형과 생활만족간의 관계의 연구들에는 문화적 규범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양의 경우, 자녀와 함께 살면 오히려 노부모의 생활만족이 낮아지고(Pillemer & Suitor, 1991 ; Aquilino & supple, 1991),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면 노인의 생활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Glenn & McLanahan, 1981). 한국의 경우 거주형태와 생활만족간의 검증한 결과 다양한 결과를 내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유영숙, 1986; 장인협, 최성재, 1993)연구결과와 자녀와의 동거가 생활만족을 포함한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유성호, 1997; 권중돈, 조주연, 2000)와 반면에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노인의 생활만족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김종숙, 1987; 홍숙자, 1992; 서미경, 김정석, 1995)결과도 있다.

김태현 · 서승희(1987)의 연구결과에서는 노인부부단독 세대의 경우에 다른 동거형태들보다도 생활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신이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근거리에 살면서 정신적인 부양만을 원하고 있으며, 같은 주택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노인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원영희(1995)의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동거나 별거형태가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4) 결혼상태 (배우자 유무)

부부관계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로 관계를 맺게된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이다. 또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김명자, 1982; 김철진, 2000; 김춘택, 1997; 장현·이철우, 1996; 정인숙, 2000).

결혼상태는 유배우자 노인이 배우자 사별노인이나 미혼노인보다는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젊은 노인보다는 고령노인에게 결혼상태가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Mannell & Dupuis, 1996).

배우자의 상실은 경제적·정신적 지주를 잃음과 동시에 특히 여자노인에게 있어 배우자의 상실은 소외감, 고독감으로 더욱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생계수단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곤란과 생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다. 즉, 배우자와의 사별은 경제적인 곤란 이외에도 사회관계망의 감소로 인한 고독감과 소외감을 쉽게 느끼게 되며, 이러한 경우 친밀한 친구 관계가 노인의 사기에 도움이 된다(Gordan, 1978; 이우복, 1993, 재인용; 김미혜 외, 1999).

Shanas 등(1968)은 홀로된 노인들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보다 생활에 불만을 더 느낀다고 하였다. 그러나 배우자의 유무가 성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명자, 1982; 김태현, 1994; 박춘선, 1990).

Rilry & Forner(1968)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에 있어서 사회 심리적 적응도나 행복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더 높고 사망률은 더 낮으며 정신질환도 더 적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배우자의 유무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결과들이 일치하진 않지만, 평균수명의 연장과 핵가족화로 인하여 자식보다는 배우자와의 유대가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유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5) 교육수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은 중요한 사회적 교환자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Schanning, 1999; 이성록 2001, 재인용), 교육수준이 높으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따라서 노후에 따른 불안감도 줄어들어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김애련, 2001; 권중돈 외, 2000; 김춘택, 1997; 정경희, 1995; 허정무, 1993; Campbell, 1975; Krause & Borawski, Clark, 1995).

정미자(1997)의 연구에 의하면 고졸이상의 노인들이 그 이하의 교육수준을 나타낸 노인들보다 여가생활에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매우 불만이다'에 응답한 노인들이 많았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고 여유있는 생활을 하게 되므로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김명자,1982 ; 김재인,1987 ; 이우복,1993)들도 있다.

반면에 박계범(1985)과 서병숙(1998)등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을 많이 받은 노인이 오히려 정서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Mclelland(1982)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으면 생활수준도 높아져서 자신의 실제수준에 대하여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은 생활만족도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것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교육수준과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이에 따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보장책도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 클럽활동,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교우관계의 범위도 넓고 동시에 자아개념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6) 종교

종교는 개인에게 규범적인 행위와 태도를 제시하고 건강을 해치는 음주, 흡연, 식사 등을 규제함으로써 건강을 도모하며 개인에게 유사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준다. 이러한 소속감은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얻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Kart,1990). 뿐만 아니라 종교는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여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도 이를 잘 받아들이게 하는 정신적 지원이 된다(Krause, 1997).

종교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종교활동을 하는 노인이 종교가 없는 노인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더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김미숙·박민정, 2000; 김태현·김수정, 1996; 윤에스더, 1999; 이우복, 1993)가 보고되었다.

Tinsley 등(1985)은 노인들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내용에 따라 심리적 이점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종교적 모임이나 사회모임에 참여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노인에게 있어 종교생활은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비공식적 지지기반으로서 노인이 겪는 배우자의 상실이나 소외, 고독,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정신영역에 위안을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김태현,1994).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는 종교적 격리감을 감소시켜주고, 집단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Harris & Cole, 1980). 종교 참여도가 높을수록 사회참여도가 높고 종교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가족결속력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김수연,1987).

반면에 종교활동을 하는 노인과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과의 생활만족도가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김종숙, 1987; 박충선, 1990; 이선미, 1991; 장상희,1983)도 제시되었다.

종교활동은 심리적 기능으로 죽음에 잘 대면하도록 도와주고, 생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막아주고, 집단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종교활동이 활발한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7) 월소득

노년기에 있어서의 경제적 안정은 노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 뿐 아니라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까지 하므로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고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노인의 경제적 빈곤은 일시적인 생활사건이라기 보다는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만성적인 생활곤경을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노인의 경제상태가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김기태 · 박봉길, 2000; 김종숙, 1987; 홍숙자, 1992)가 보고되었다.

노인들은 실제 경제상태보다 노년기의 소득감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소득의 절대적 수준보다 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경제상태의 만족여부가 노후생활만족도에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박경란,

1988; 이영자, 1999)가 있다.

2) 고독감

고독(孤獨, Loneliness)의 사전적 의미는 부모가 없는 어린이, 자식이 없는 늙은이, 또는 짝이 없는 남녀를 뜻하거나 단순히 외로움이라는 의미이다. 고독에 대한 연구는 거의 행동과학에서 아주 최근까지 무시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고독을 행동과학에서 다룰 수 없는 현상으로만 여겼기 때문이다(Rubenstein & Shaver, 1982; 송대현·윤가현, 1989: 64). 임상적인 측면에서도 고독이 다른 심리적인 부적응 현상과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립적 연구사례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동안 간헐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고독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들어오면서 급속히 성장했으며, 이 당시부터 고독의 개념이 다른 현상들(예; 불안·우울·죽음)의 개념과 분리하게 되었다(Rock & Peplau, 1982; 송대현·윤가현, 1989: 64).

"고독 :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의 경험(Loneliness : The experience of emotion and social isolation)"이라는 Weiss(1973)의 저서가 발간되면서 고독을 독립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인들이 경험하는 고독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만성적인 것으로 그 원인은 노화로 인한 활동의 제약이나 건강, 배우자의 사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과는 형태가 다르다.

고독감 "Loneliness"의 개념이 국내연구에서는 고독감·외로움·소외감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고독감은 많은 사람들이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Fromm-

Reichmann(1959)은 앞으로 대인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이라 하였으며, Peplau & Perlman(1973)은 인간의 사회적 대인관계 조절이 질적·양적으로 불충분할 때 발생하는 불쾌한 경험이라고 하였다(배진희, 2002, 재인용).

Lopata(1973)는 고독이란 외로움이 아니며 고립(isolation)과 쓸쓸함(desolation)으로 구별하는 것이 유용하고 홀로 있어서가 아니라 일정하게 필요로 하는 관계나 일련의 관계가 소멸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고독은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상태로 명확히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으나 고독감은 개인에 국한된 느낌으로서 어느 경우나 상대와 자신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허선영, 2000).

고독이라는 정의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고독의 심리적·정서적 상태를 분명하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다음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고독의 심리적·정서적 상태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고독이란 개인에 국한된 느낌으로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개념이며, 어떤 만족스러운 관계가 결여됨을 말한다(Ellisson, 1978; 박춘희, 2002, 재인용).

<표 2-1> 고독의 정의

저 자	정 의
Tanner	"사랑에 관한 공포", 누군가와 교류할 수 없거나, 그 이유가 상대방의 오해나 거부로부터 인할 경우에 발생.
Hoskisson	사람은 스스로 고독하다고 생각하므로 비로소 고독해진다고 하면서 고독이란 원하고, 구하고, 필요로 하는 사물이나 사람으로부터의 분리 의식.
Fromme	타인과 융합되지 않는데 대한 근본적인 감정
Lopata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부적응을 느끼는 사람의 자기거부
Weiss	고독이란 널리 산재해 있는 것으로서 심히 고통스런 접근
Peplan	개인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이미 성취된 사회적 관계와의 괴리에 대한 반응
Sodler	고독이란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경험이고 고독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자아전체를 둘러싸는 것 같은 특별한 느낌.

출처 : (박준희, 2002, 재인용)

고독의 원인을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성격·인지과정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구분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의 상실과, 동료·이웃사람과의 유대결핍으로 보기도 한다. 다음은 고독을 일으키는 원인을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고독의 원인

저 자	정 의
Peplau	· 객체적 원인 : 사회적 역할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결혼상태의 변화 등 개인에게 사회적인 고립이나 소외감을 경험하게 만드는 배우자의 죽음, 이혼, 이사, 은퇴, 질병의 발생 등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있을 때 생긴다(상황적 요인)
	· 주체적 원인 : 개인의 성격에 의하여 고독이 발생한다는 입장으로 개인의 성격 및 인지과정이 고독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성격적 요인)
Weiss	· 감정적 고립의 고독 : 아주 친밀한 관계 즉 배우자, 애인, 부모 또는 자녀들의 관계가 결여되거나, 상실했을 때 나타난다(친밀한 애착대상물의 부족)
	· 사회적 고립의 고독 : 직장의 동료나 친척, 이웃사람이나 취미를 같이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가 결핍되었을 때 나타난다(공동체적 소속감의 결여)

출처 : (안근석, 1987, 박준희, 2002, 재인용)

<표 2-3> 고독의 분류

저 자	정 의	
Moustakas & Mijuskov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고독 : 고독은 사회적 결핍에서 온다 · 실존적 고독 : 인간은 궁극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출발로 삼는다. 이 개념은 고독이 자신의 삶에 대한 독자적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해준다 	
Von witzleb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차적 고독 : 세상은 자신이 혼자 일 수 밖에 없다는 자각에서 생김 · 이차적 고독 : 사회적 상실에서 오는 고독 	
Young	지속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정적 고독 : 시간의 경과와 함께 쉽게 사라지는 보편적인 형태 · 만성적인 고독 :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고독

출처 : (안근석, 1987; 박춘희, 2002, 재인용)

<표 2-3>은 고독을 지속시간에 따라 잠정적인 고독과 만성적인 고독으로, 일차적 고독과 이차적 고독, 심리적 고독과 실존적 고독으로 분류하였다.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타인들과 사회적인 접촉을 쉽사리 하지 못한다. 결국, 그들은 고독을 느끼지 않는 사람과 자기노출의 형태가 다른데, 상황에 따라서 타인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해 버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아주 사적인 것으로 지키기도 한다(Peplau & Perlman : 1982). 고독의 경험은 대체로 불유쾌하고 (unpleasant), 걱정을 유발시키고(distressing), 고통스러운 것(painful)것이므로, 고독을 심하게 느끼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자기 중심적이고, 내향적이며, 사회적 활동에 소극적이듯이 전반적으로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훨씬 부정적이다. 예를 들면, 그들은 자기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상실과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절망감, 염세감, 무력감으로 인해 불안, 우울증, 불행감, 불만 등과 같은 정서를 경험한다(Peplau 등, 1982 ; Russell 등, 1978). 그

래서, 그들은 보통 불만을 느끼고, 자신들이 긴장, 초조, 지루하다고 표현하며, 쉽게 화를 내고, 자존심의 손상을 느끼고, 성격도 까다로운 편이다(송대현·윤가현,1989).

Holme(1992)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령과 주관적인 건강상태에서 고독감의 연관성을 보였고,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친구 유무, 인지기능,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고독감의 예측인자로 확인되었다. 김미옥(1986)은 노인의 고독감과 신체적 노화에 대한 연구에서 노인의 고독감 정도와 신체적 노화정도는 유사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3)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결속도의 개념은 Durkheim의 사회이론에서 유래되어 역사적으로 가족을 포함한 조직구성원간의 상호의존, 상호보완, 규범과 가치의 공유를 의미한다(McChesney & Bwngtson, 1988, 정혜정 외, 2000;재인용). 세대간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데 관련된 개념들인 세대간 결속도는 세대간 첩족의 빈도, 거주지 접근성, 상호부조 등의 양적 측면과 세대간 가까움의 정도, 애정 갈등의 정도와 내재화된 규범 등의 질적 측면으로 접근될 수 있다.

이러한 가족결속도의 개념은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결속도의 정도, 가치와 목표에 대한 일치, 활동과 과제의 분담, 가족구성원의 자율성을 위한 격려와 주어진 환경내에서의 독자성을 포함한다(Anderson, 1988, 재인용).

또한 가족의 결속도는 스트레스 대처능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결속도가 높은 가족은 결속도가 낮고 분산된 가족에 비해 스트레스를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결속도가 약한 가족은 소원한 상태이고 경직되어 있어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고, 노부모는 성인자녀와의 만족스러운 정서적 관계를 유지할 때 심리적으로 건강함을 얻을 수 있고 우울이 감소된다

(이윤정, 1994).

Bengtson과 그의 동료들(1982)은 가족 결속의 개념을 구조적 결속, 접촉적 결속, 애정적 결속, 가치관 일치적 결속, 기능적 결속, 규범적 결속의 6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노부모- 성인자녀간의 결속을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최정혜, 1992).

이 개념들을 이용한 연구로는 서울시 노인을 대상으로 척도의 유용성을 조사한 조병은(1988)의 연구와 최정혜(1992)의 연구가 있으며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를 보여 준 6개의 결속개념은 아래와 같다(Cho, 1988).

첫째, 구조적 결속은 자녀수, 자녀와의 지리적 근접성들을 포함한다. 둘째, 접촉적 결속은 일상적 만남, 의례적 가족모임 등의 직접적 접촉과 전화, 편지를 통한 간접적 접촉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애정적 결속은 신뢰, 전경, 친밀감, 사랑, 만족감, 자신의 문제나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정도로 표현될 수 있으며 현재 느끼는 따뜻한 감정, 가까움의 정도의 긍정적 정서를 말한다. 넷째, 기능적 결속은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에 일어나는 서비스의 교환과 재정적 원조를 포함한다. 이를 노부모가 성인자녀를 도와주는 경우와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돕는 두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다섯째, 일치적 결속은 정치적 이슈, 일반적 가치관 신념, 가족외적 주제에 있어서 노부모와 성인간의 유사성이나 일치의 정도를 나타낸다. 여섯째, 규범적 결속은 가족주의에 대한 규범을 포함하며 자식으로서의 의무감, 책임감이 포함된다.

성인자녀와 노부모간의 접촉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서구의 연구결과와 우리나라의 연구결과 간에 상반된 보고가 나타나고 있다. Mancini & Bliesner(1989)는 성인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Talbott(1990)에 의하면 자녀와의 접촉이 부모의 신체가 쇠약해질 때 높아지기 때문에

부모는 바람직하지 않은 의존성과 자긍심의 상실로 인해 자녀와의 접촉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와의 결속도가 높을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들(김효정, 1995; 김종숙, 1986; 한임섭, 1987; 김은주, 1994)과 자녀와의 결속관계가 좋을 경우 노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낮아진다는 연구(최정혜, 1992; 신호식, 1993; 이윤정, 1994)가 있으며, 가족결속도가 높을수록(김수연, 1987; 김효정, 1995), 자녀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부양체계가 거의 없이 노후를 주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유대관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노인과 성인자녀의 주관적 유대관계가 원만할수록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며, 만족스러운 정서적 교류도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권중돈, 조주연, 2000).

4) 노인의 여가활동

노인의 여가를 정의하면서 Corbin & Tait(1973)는 여가는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도울 뿐 아니라 자기표현의 기회가 되며, 또한 개개인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면서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가활동을 통해 소속감이나 성취감, 상호작용, 성장, 인정 등의 욕구가 충족되어 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최덕경, 1998).

Bull(1975)은 사회참여를 많이 하는 노인과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노인

의 생활만족도 간의 차이는 없으며 (박재간·김태현, 1988; 재인용), Ward(1979)는 노인들이 동년배집단과 자주 어울린다고 해서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지만, 카드놀이를 하는 노인보다는 활동적인 일에 참여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서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Ward & Sherman(1984)은 노인의 사회모임 참여나 활동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며, 특히 자신의 은퇴와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상실감을 심리적으로 보상해주며 고독감을 감소시켜 준다고 하였다(이선미, 1991재인용).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의 여가활동 추가와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Ward & Sherman(1984)은 노인의 교제나 사회활동이 자신의 은퇴와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을 심리적으로 보상해주며,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김종숙(1986)은 여가를 그들의 특성과 목적에 맞추어서 다양한 형태로 여가활동에 참여한다. 특히 여가활동은 그들이 참여함으로써 얻게되는 보상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데, 특정 개인에게 일상활동이나 업무에서 얻을 수 없는 내적 만족이나 자아실현과 같은 심리적·상징적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정우·이윤미(1997)는 노인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들의 습득이 요구되며, 사회화를 통하여 지식과 기술이 익숙해졌을 때 노년기에 보다 유용하고 재미있으며 효과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노인의 여가는 노령기 생활을 얼마나 만족스럽고 건설적으로 보낼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노인 자신의 사기와 자아상을 갖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 배우자유무에 따른 노인의 생활특성의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 유배우자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 무배우자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 배우자유무에 따른 노인의 사회인구학적변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은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도시 노인의 고독감과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4요인, 여가활동 6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총 87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구성 내용은 사회인구학적변인 7문항, 고독감 8 문항,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20문항, 여가활동유형 34문항, 생활만족도 18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결혼관계, 교육수준, 동거유형, 종교유무, 월소득으로 구성하였다. 노인의 성별은 남자에 '0점', 여자에 '1'점을 주어 가변수 처리를 하였다.

결혼관계에는 결혼(배우자 생존)에 '1점', 기타(사별, 이혼 및 별거, 미혼 등)에는 '0점'을 주었다. 교육수준에는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를 '1점'일 때,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은, '0'점 처리하였으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에 '2점'을 주었을 때,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0점'주어 가변수 처리하였다.

동거유형에는 배우자와 단둘이 동거하는 경우 '1점'을 주었을 때, 미혼 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동거, 결혼한 아들, 딸 부부와 동거하는 노인, 독신과 기타(미혼자녀, 조카와 동거, 형제와의 동거 등)에 '0점'을 주었으며, 독거 하는 경우 '2'점을 주었을 때, 배우자와 단둘이 동거, 미혼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동거, 결혼한 아들, 딸 부부와 동거, 기타(미혼자녀, 조카와 동거, 형제와의 동거 등)에 '0점'을 주어 가변수 처리하였다.

종교유무에는 있다 '1점', 없다 '0점'을 주었다. 소득에는 소득1(50만원 이하)에 1점을 주었을 때, 소득2 (51- 200만원)와 소득3 (201만원 이상)에 0점 처리를 하였으며, 소득 2(51- 200만원)에 '2점'주었을 때, 소득1(50만원 이하)과 소득3 (201만원 이상)에 '0'점을 주었다. 소득3(201만원 이상)에 3점을 주었을 때, 소득1(50만원 이하)과 소득2 (51- 200만원)에 0점을 주어 가변수 처리하였다.

2) 고독감

노인의 고독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현진(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하였다. 인간내적 심리적요인과 대인적 관계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응답의 척도는 3점 Likert type으로 '그렇다'에 3점, '보통이다'에 2점, '아니다'에 1점을 주었다. 고독감 문항 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주위에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문항은 긍정적인 문항으로 역코드 처리하였다. 전체 문항의 점수범위는 8점에서 2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고독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의미한다. 고독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9033으로 나타났다.

3)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노인의 성인자녀와의 결속을 측정하기 위해 Bengtson 과 Cutler(1976)가 분류한 자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결속도(Objective Solidarity)로 레크레이션, 대화, 중요한 일에 대한 논의, 도움을 주고받는 일, 가족행사가 포함된다. 둘째, 주관적 결속도(Subjective Solidarity)로 이해, 신뢰, 공정, 존중, 애정이 포함된다. 셋째, 합의적 결속도(Consensual Solidarity)로 전반적인 가치 지향에서의 일치 포함된다.

척도는 3점 Likert type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긍정적인 문항은 '그렇다'에 3점, '보통이다'에 2점, '아니다'에 1점을 주었다.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문항 중 '자녀들에게 못 마땅한 일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못 한다',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거리감이 느껴진다', '나와 자녀들은 생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등의 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역코드 처리하였다. 전체 문항의 점

수범위는 20점에서 6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자녀와의 결속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8933으로 나타났다.

4) 조사대상자의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요인분석

성인자녀와의 결속도는 총 20개의 변수를 요인분석에 포함시켰으며, 이 들로부터 유형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항목들은 Varimax 방식에 의해 회전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3 - 1>에서와 같이 '요인 1'의 문항에는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정도와 대화, 친밀감 등으로 '애정적 결속'이라고 이름을 명명하였으며, 고유값은 4.33이고 변량은 21.65%를 설명하고 있다.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1 요인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88로 나타났다. 요인 1은 7문항으로 점수 범위는 7점에서 2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 결속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요인 2'의 문항에는 부모와 자녀간에 일어나는 서비스의 교환으로서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도와주는 것으로 '기능적 결속'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고유값은 2.75이고, 변량은 14.76%이다.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2요인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75로 나타났다. 요인 2는 5문항으로 점수범위는 5점에서 1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적 결속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요인 3'의 문항에는 가족주의에 대한 규범을 포함하여 자식으로서의 심리적, 행동적 의무감과 책임감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범적 결속'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값은 2.70이고, 변량은 13.50%이다.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3 요인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56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은 5문항으로 점수범위가 5점에서 1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규범적 결속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요인 4’의 문항에는 가치관 신념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치관 결속도’라고 명명하였으며, 고유값은 1.75이고, 변량은 8.751%이다.

<표 3-1>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요인 구성변인

요인 구성변인	요인 부하량	고유값	변량 (%)	누적변량 (%)
요인 1 : 예정적 결속				
자녀들은 외식이나 외출할 때 나를 함께 데리고 간다	.62	4.33	21.65	21.65
자녀들과 더불어 많은 대화를 나눈다	.67			
자녀들은 집안 일이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75			
자녀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더라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와줄 능력이 없다	.67			
자녀에게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못한다	.79			
자녀부부나 손·자녀간에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중재를 부탁한다	.75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들로부터 거리감이 느껴진다	.55			
요인 2 : 기능적 결속				
모든 자녀들은 나의 생일을 기억하고 찾아온다	.71	2.75	13.76	35.41
점차 늙어감에 따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자녀들은 나를 열심히 도와준다	.68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자랐고 자식들이 자랑스럽다	.69			
요즘 자녀들의 행동이 못마땅하게 느껴진다	.40			
나의 자식들은 부모인 나에게 감사해한다	.50			
요인 3 : 규범적 결속				
자녀들이 여행을 갈 때면 같이 안 가게된다	.70	2.70	13.50	48.92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점차 식어가는 것 같다	.42			
자녀들이란 부모와는 달라서 어려운 때에는 부모생각을 덜 하기 마련인데 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80			
자녀들은 예전에 비해 나에게 소홀하다	.67			
자녀들은 내가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들만을 위 해 줄 것이라 믿는다	-.47			
요인 4 : 가치관일치의 결속				
자녀들은 내가 그들을 편애한다고 불평한다	.68	1.75	8.751	57.67
세대차이 때문에 자식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56			
나와 자녀들은 생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60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4요인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49로 나타났다. 요인 4는 3문항으로 점수범위가 3점에서 9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치관 결속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5) 여가활동

<표 3-2> 여가활동유형의 구성내용

여가활동 유형분류	구성 내용	문항수
자기개발	문예활동 (시, 수필, 편지쓰기 등), 수집활동 (분재, 악세사리, 수석 등), 서예, 목화, 그림 그리기, 노래부르기, 악기연주, 교양강좌 (노인대학 등), 외국어 강좌(영어, 일어 등), 컴퓨터 강좌, 독서	8문항
가족중심	친척 및 자녀집 방문, 가족과의 대화, 가족과 외식, 손자녀 돌보기 및 놀아주기, 정원손질 및 정원 가꾸기, 특별 음식 만들기 및 간식만들기	6문항
종교 및 사회	종교활동(예배, 개인적인 기도), 사회봉사 및 사회단체 참여	2문항
사교오락	영화 및 영국극관람, 음악회 관람, 각종 작품 전시회관람, 각종 스포츠관람, 놀이 (화투, 게임, 바둑, 장기 등), 사우나 및 온천, 낚시하기, 동창회·계모임·친목회 등 참석, 노인정 가기, 관광 및 해외여행	10문항
소일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낮잠 및 휴식, 무료하게 시간 보내기(집이나 근처 공원에서)	3문항
건강	골프, 등산, 산보 및 조깅, 요가 및 단전호흡, 체조	5문항

여가활동에서는 먼저 이선미(1992), 진봉국(1993), 송정선(1996) 등의 연구를 토대로 여가활동종류를 34문항으로 선정하였으며, 여가활동의 성격이 비슷한 문항을 다시 6가지 여가활동으로 유형화하였다. 즉 선행연구를 토대로 작성된 여가활동은 ① 자기개발 여가활동(1- 8) ② 가족중심 여가

활동(9- 14) ③ 종교 및 사회참여 여가활동 (15- 16) ④ 사교오락 여가활동 (17- 26) ⑤ 소일 여가활동(27- 29) ⑥ 스포츠 및 건강 여가활동(30- 34) 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6가지 여가활동의 구성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각 문항마다 '전혀 안함' 1점, '아주 가끔하는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자주하는 편이다, 4점, '매일한다' 5점을 주어 측정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할 때는 유형화 작업을 통하여 분류된 6가지 여가활동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각각의 여가활동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합산한 값으로 하였다.

6) 생활만족도

본 연구에 사용된 생활만족도 척도는 Havighurst와 동료들에 의하여 개발된 LSI -A(Life Satisfaction Index -A)를 사용하였다(Bernice I. Neugarten, Robert R. Havighurst, and Sheldon S. Tobin, 1961). LSI- A는 5개 구성요소를 가진 18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LSI- A의 구성내용은 첫째, 현재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열성 또는 자아투입, 둘째,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게 느끼는 통합력, 셋째, 인생에서 바라던 목적과 성취한 목적간의 일치감, 넷째, 긍정적인 자아관, 다섯째, 행복하고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이다(Robert J. Havighurst, 1963). LSI -A는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각 문항은 '아니다' 1점, '보통이다', 2점, '그렇다' 3점을 주었다. 생활만족도의 문항 중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이루어 놓은게 별로 없다', '매일 매일의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요즈음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다', '앞으로 내가 할 만한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등의 문항은 부정적인 문

항으로 역코드 처리하였다. 생활만족도는 과거생활만족도, 현재 생활만족도, 미래 생활만족도로 나누었으며, 과거의 생활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7290이며, 4문항으로 점수범위는 4점에서 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과거의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현재생활만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9085이며, 7문항으로 점수범위는 7점에서 2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의 생활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미래의 생활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80이며, 4문항으로 점수범위는 4점에서 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의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생활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8943이며, 모두 18문항으로 점수범위는 18점에서 5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60세를 노인의 기준연령으로 삼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만 60세를 회갑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노인이라고 인식이 되어왔음을 고려하여 노인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 70명을 대상으로 2004년 9월 2일부터 9월 9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결과분석 후 일부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9월 15일부터 10월 4일간에 걸쳐 노인에게 직접 묻고 답하는 면접방법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서초구에 위치한 노인대학과 관악구의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들이 주로 많이 소일하는 파고다공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된 것은 202부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C Program(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 Win Ver 1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에 대한 단순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성인자녀와의 결속도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4가지(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 유형으로 나뉘어졌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 기능적 결속도, 규범적 결속도, 가치관 결속도,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족중심 여가활동, 종교 및 사회 여가활동, 사교오락 여가활동, 소일 여가활동, 건강 여가활동,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t-검증, 분산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변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이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4. 기초자료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배우자 유무와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3- 3>과 같다.

유배우자 노인들의 성별은 남자노인이 79.0%, 여자노인이 39.7%로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이 배우자가 더 많았다. 유배우자 노인들의 연령은 66-70세의 노인이 30.5%, 61- 65세의 노인이 25.2%, 71- 75세 노인이 21.4%, 76- 80세의 노인이 17.6%, 80세 이상의 노인이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들의 동거유형에는 배우자와 단둘이 사는 노인이 54.2%, 미혼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이 36.2%, 기타(미혼자녀와 동거, 조카와 동거, 형제와 동거 등)18.8%, 결혼한 아들과 같이 사는 노인이 6.1%, 결혼한 딸과 사는 노인이 0.8%, 혼자 독신으로 사는 노인이 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 = 202)

일반적 사항	구분	유 배우자		무 배우자		전체 조사대상자	
		N	%	N	%	N	%
성별	남자	79	60.3	16	22.5	95	47.0
	여자	52	39.7	55	77.5	107	53.0
연령	61- 65	33	25.2	5	7.0	38	18.8
	66- 70	40	30.5	11	15.5	51	25.2
	71- 75	28	21.4	26	36.6	54	26.7
	76- 80	23	17.6	15	21.1	38	18.8
	80세 이상	7	5.3	14	19.7	21	10.4
동거 유형	결혼한 아들	8	6.1	16	22.5	24	11.9
	결혼한 딸	1	.8	15	21.1	16	7.9
	미혼자녀와 배우자	48	36.6	.	.	48	28.8
	배우자	71	54.2	.	.	71	35.1
	독신	.	.	27	38.0	27	13.4
	기타	3	18.8	13	18.3	16	7.9
결혼관계	배우자 생존	131	100.0	.	.	137	64.9
	사별	.	.	66	93.0	66	32.7
	이혼 및 별거	.	.	5	7.0	5	2.5
교육수준	무학	1	.8	7	9.9	8	4.0
	초등학교	16	12.2	21	29.6	37	18.3
	중학교	12	9.2	17	23.9	29	14.4
	고등학교	62	47.3	18	25.4	80	39.6
	대학교 이상	40	30.5	8	11.3	48	23.8
종교유무	있다	98	47.8	53	73.2	150	74.3
	없다	33	25.2	19	26.8	52	25.7
월소득	50만원이하	19	14.5	46	64.8	65	32.2
	51 - 100 만원	15	11.5	11	15.5	26	12.9
	101 - 150 만원	17	13.0	5	7.0	22	10.9
	151 - 200 만원	20	7.6	2	2.8	12	5.9
	201 - 250만원	28	21.4	4	5.6	32	15.8
	251 - 300만원	14	10.7	1	1.4	15	7.4
	300 만원이상	28	21.4	2	2.8	30	14.9

유배우자 노인들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를 나온 노인이 4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대학교 이상을 나온 노인이 30.5%, 초등학교를 나온 노인이 12.2%, 중학교를 나온 노인이 9.2%, 무학인 노인 .8%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들의 종교유무에는 종교를 믿는 노인이 47.8%, 종교가 없는 노인은 25.2%로 종교를 믿는 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들의 월소득은 201- 250만원 소득과 300만원 이상 소득의 노인이 21.4%로 가장 많았으며, 50만원이하 소득의 노인이 14.5%, 101- 150만원 소득의 노인이 13.0%, 51- 100만원 소득의 노인이 11.5%, 151- 200만원 소득의 노인이 7.6%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들의 성별은 여자노인이 77.5%, 남자노인이 22.5%로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의 무배우자가 더 많았다. 무배우자 노인들의 연령은 71- 75세 노인이 36.6%, 76- 80세의 노인이 21.1%, 80세 이상의 노인이 19.7%, 66- 70세의 노인이 15.5%, 61- 64세의 노인이 7.0%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들의 동거유형에는 독신으로 사는 노인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한 아들과 같이 사는 노인이 22.5%, 결혼한 딸과 사는 노인이 21.1%, 기타(미혼자녀와 동거, 조카와 동거, 형제와 동거 등)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들의 결혼관계에서는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이 93.0%였으며, 이혼 및 별거 노인이 7.0%였다. 무배우자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를 나온 노인이 29.6%, 고등학교를 나온 노인이 25.4%, 중학교를 나온 노인이 23.9%, 대학교 이상을 나온 노인이 11.5%, 무학인 노인 9.9%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들의 종교유무에는 종교를 믿는 노인이 73.2%, 종교가 없는 노인은 26.8%로 종교를 믿는 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들의 월소득은 50만원이하 소득의 노인이 64.8%로 가장 많았으며, 51- 100만원 소득의 노인이 15.5%, 101- 150만원 소득의 노인이 7.0%, 201- 250만원 소득 노인이 5.6%, 151- 200만원 소득의 노인과 300만원 이상 소득의 노인이 2.84%, 251- 300만원 소득의 노인이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노인들의 성별은 남자노인이 47.0%, 여자노인이 53.0%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더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노인들의 연령은 70- 74세의 노인이 26.7%, 65- 69세의 노인이 25.2%, 60- 64세의 노인이 18.8%, 75- 79세의 노인이 18.8%, 80세 이상의 노인이 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유형에는 배우자와 단둘이 사는 노인이 36.1%, 미혼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이 24.3%, 결혼한 아들과 같이 사는 노인이 11.9%, 결혼한 딸과 사는 노인이 7.9%, 혼자 독신으로 사는 노인이 13.4%, 기타(미혼자녀와 동거, 조카와 동거, 형제와 동거 등)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관계에서는 배우자생존 노인이 64.9%, 사별한 노인이 32.7%, 이혼 및 별거한 노인이 2.5%로의 순으로 배우자가 생존한 노인이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를 나온 노인이 39.6%, 대학교 이상을 나온 노인이 23.8%, 초등학교를 나온 노인이 18.3%, 중학교를 나온 노인이 14.4%, 무학인 노인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는 종교를 믿는 노인이 74.3%, 종교가 없는 노인은 25.7%로 종교를 믿는 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50만원이하 소득의 노인이 32.2%, 51- 100만원 소득의 노인이 12.9%, 101- 150만원 소득의 노인이 10.9%, 151- 200만원 소득의 노인이 5.9%, 201- 250만원 소득의 노

인이 15.8%, 251- 300만원 소득의 노인이 7.4%, 300만원 이상 소득의 노인이 14.9%의 순으로 나타냈다.

2) 조사대상자의 고독감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 전체 조사대상자의 노인의 고독감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보면 <표 3- 4>와 같다. 유배우자 노인의 고독감 평균은 1.52점으로 전체 평균 1.79점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무배우자 노인 고독감 평균은 2.28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4> 조사대상자의 고독감 (n = 202)

변 인	유배우자		무배우자		전체 조사대상자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고독감	1.52	.53	2.28	.68	1.79	.69

3) 조사대상자의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 전체 조사대상자 노인의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 기능적 결속도, 규범적 결속도, 가치관 결속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보면 <표 3- 5>와 같다. 유배우자 노인의 애정적 결속도의 평균은 2.52점, 기능적 결속도 2.66점, 규범적 결속도 2.14점, 가치관 결속도 2.30점으로 조사대상자 전체의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의 애정적 결속도는 평균 1.44점, 기능적 결속도 2.20점, 규범적 결속도 1.78점, 가치관 결속도 2.01점으로 전체 조사대상자 노인의 평균점수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3-5> 조사대상자의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 기능적 결속도, 규범적 결속도, 가치관 결속도 (n = 202)

변 인		유배우자		무배우자		전체 조사대상자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성인 자녀와의 결속도	애정적 결속도	2.52	.78	1.44	.72	2.14	.92
	기능적 결속도	2.66	.40	2.20	.67	2.50	.55
	규범적 결속도	2.14	.50	1.78	.54	2.01	.54
	가치관 결속도	2.40	.56	2.01	.56	2.26	.59

4) 조사대상자의 여가활동

조사대상자의 여가활동유형 및 여가정도의 실태를 살펴보면 <표3- 6>, <표3- 7>과 같다. 매일 가장 많이 활동하는 여가에는 소일 여가활동으로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97.0)%가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의 대화(38.0%)와 집 근처 공원에서 무료한 시간보내기(22.3%)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혀 안 하는 여가활동에는 자기개발 여가활동이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6)가 전국 저소득층 노인 1,041명을 대상으로 밝힌 결과에서는 라디오 청취와 TV시청이 7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화투, 장기 등의 놀이가 26.5%, 공원, 복덕방, 경로당 등에서 소일활동이 17.4%, 신문, 잡지, 서적 등 독서활동이 9.5%, 등산, 산책 등 운동이 6.9%, 예술 관련활동은 1.0%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0)의 조사에 의하면 서구의 경우 노인들이 운동경기 참여 및 관람문화 및 예술적 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 유형의 참여에 비하면 우리

나라 노인들은 이러한 여가활동에의 참여에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조사대상자의 유형별 여가활동실태 (n = 202)

여가활동유형	여가횟수		전혀 안함		아주가끔 (일년1-2)		보통 (한달1-2)		자주 (일주일1-2)		매일	
	N	%	N	%	N	%	N	%	N	%	N	%
자기 개발	문예활동 (시, 수필, 편지쓰기 등)	175	86.6	13	6.4	9	4.5	5	2.5	0	0.0	
	수집활동 (분재, 악세사리, 수석 등)	168	83.2	16	7.9	15	7.4	3	1.5	0	0.0	
	서예 / 목화 / 그림 그리기	157	77.7	9	4.5	28	13.9	8	4.0	0	0.0	
	노래부르기 / 악기연주	144	71.3	11	5.4	32	15.8	12	5.9	3	1.5	
	교양강좌 (노인대학 등)	117	57.9	7	3.5	19	9.4	53	26.2	6	3.0	
	외국어 강좌(영어, 일어 등)	142	70.3	9	4.5	20	9.9	25	12.4	6	3.0	
	컴퓨터 강좌	118	58.4	14	6.9	19	9.4	38	18.8	13	6.4	
	독서 (신문, 성경, 책 등)	80	39.6	6	3.0	19	9.4	53	26.2	44	21.8	
가족 중심	친척 및 자녀집 방문	63	31.2	50	24.8	60	29.7	23	11.4	3	3.0	
	가족과의 대화	35	17.3	11	5.4	30	14.9	47	23.3	78	38.6	
	가족과 외식	51	25.2	55	27.2	71	35.1	21	10.4	4	2.0	
	손자녀 돌보기 및 놀아주기	65	32.2	22	10.9	49	24.3	37	18.3	29	14.4	
	정원손질 및 정원(화초) 가꾸기	110	54.5	14	6.9	17	8.4	41	20.3	20	9.9	
	특별 음식만들기 및 간식만들기	136	67.3	5	2.5	23	11.4	29	14.4	9	4.5	
종교 및 사회	종교활동(예배, 개인적인 기도)	88	43.6	3	1.5	20	9.9	63	31.2	28	13.9	
	사회봉사 및 사회단체 참여	141	69.8	22	10.9	18	8.9	16	7.9	4	2.0	
사교 오락	영화 및 영국관람	108	53.5	51	25.2	37	18.3	6	3.0	0	0.0	
	음악회 관람	134	66.3	36	17.8	28	13.9	4	2.0	0	0.0	
	각종 작품 전시회관람	138	68.3	42	20.8	18	8.9	4	2.0	0	0.0	
	각종 스포츠관람	157	77.7	20	9.9	15	7.4	9	4.5	1	0.5	
	놀이 (화투, 게임, 바둑, 장기 등)	106	52.5	18	8.9	38	18.8	24	11.9	16	7.9	
	사우나 및 온천	56	27.7	11	5.4	51	25.2	81	40.1	3	1.5	
	납시하기	170	84.2	21	10.4	11	5.4	0	0.0	0	0.0	
	동창회·계모임·친목회 등 참석	55	27.2	24	11.9	115	56.9	8	4.0	0	0.0	
	노인정 가기	138	68.3	2	1.0	10	5.0	20	9.9	32	15.8	
	관광 및 해외여행	67	33.2	126	62.4	6	3.0	1	0.5	2	1.0	
소일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2	1.0	0	0.0	1	0.5	3	1.5	196	97.0	
	낮잠 및 휴식	117	57.9	2	1.0	10	5.0	35	17.3	38	18.8	
	집, 근처공원에서 무료한 시간보내기	123	60.9	4	2.0	13	6.4	17	8.4	45	22.3	
건강	골프	159	78.7	17	8.4	14	6.9	7	3.5	5	2.5	
	등산	87	43.1	20	9.9	52	25.7	31	15.3	12	5.9	
	산보 및 조깅	73	36.1	12	5.9	46	22.8	40	19.8	31	15.3	
	요가 및 단전호흡	124	61.4	5	2.5	28	13.9	41	20.3	4	2.0	
	체조	100	49.5	4	2.0	28	13.9	50	24.8	19	9.4	

배우자 유무에 따라 여가활동 유형에 참여하는 정도를 비교해 보면, 유배우자 노인의 자기개발 여가활동 평균점수는 1.93점, 가족중심의 여가활동 평균점수는 2.80점, 종교 및 사회 여가활동은 2.29점, 사교오락 여가활동

동은 1.91점, 소일활동은 3.00점, 건강 여가활동은 2.42점으로 소일활동을 하는 노인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유배우자 노인의 유형별 여가활동 중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참여, 사교 및 오락, 건강 여가활동의 평균점수는 전체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왔으며, 소일활동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의 자기개발 여가활동은 1.54점, 가족중심의 여가활동 평균점수는 2.09점, 종교 및 사회참여 여가활동은 1.95점, 사교 및 오락 여가활동은 1.69점, 소일 3.57점, 건강 여가활동은 1.71점으로 전체평균 점수보다 낮았으며, 소일활동만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7> 조사대상자의 유형별 여가활동 (n = 202)

변인	유배우자		무배우자		전체 조사대상자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여 가 활 동	자기개발	1.93	.65	1.54	.59	1.79	.65
	가족중심	2.80	.84	2.09	1.37	2.55	1.11
	종교 및 사회	2.29	1.10	1.95	1.00	2.17	1.08
	사교오락	1.91	.39	1.69	.43	1.83	.42
	소일	3.00	.82	3.57	.96	3.20	.91
	건강	2.42	.69	1.71	.79	2.17	.80

5)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

유배우자와 무배우자 노인 그리고 전체 조사대상자 노인의 과거 생활만족도, 현재 생활만족도, 미래 생활만족도, 전체 생활만족도의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표3- 8>과 같다.

<표 3-8>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

(n = 202)

변인		유배우자		무배우자		전체 조사대상자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생활만족도	과거 생활만족도	2.23	.54	1.51	.57	1.97	.65
	현재 생활만족도	2.48	.47	1.79	.71	2.24	.65
	미래 생활만족도	2.12	.57	1.50	.61	1.90	.66
	전체 생활만족도	2.33	.47	1.65	.58	2.09	.60

유배우자 노인들의 과거 생활만족도 평균점수는 2.23점, 현재 생활만족도는 2.48점, 미래 생활만족도 2.12점, 전체 생활만족도는 2.33점이었으며, 무배우자 노인들의 과거 생활만족도의 평균은 1.51점, 현재 생활만족도 1.79점, 미래 생활만족도 1.50점, 전체 생활만족도 1.65점이었다. 유배우자 노인들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 생활만족도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조사대상자 노인, 무배우자 노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와 무배우자 전체 조사대상자 노인들은 현재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미래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유무에 따른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사회인구학적변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 기능적 결속도, 규범적 결속도, 가치관 결속도,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족중심 여가활동, 종교 및 사회 여가활동, 사교오락 여가활동, 소일 여가활동, 건강 여가활동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전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을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일반적 사항

<표4- 1>은 <표 3- 3>에서 제시한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각 변수별 유무를 단순화시켜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유배우자 노인의 성별은 여자노인이 39.7%, 남자노인이 60.3%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더 많은 반면, 무배우자 노인의 경우는 여자노인이 77.5%, 남자노인이 22.5%로 여자노인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의 연령은 60대 노인이 55.7%로 가장 많았고, 80대 노인은 5.3%인 반면, 무배우자 노인의 경우에는 70대가 57.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80대 노인은 19.7%로 유배우자의 80대 노인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유배우자 노인은 고등학교 이상 교육수준의 노인이 77.9%로 무배우자 노인의 고등학교 이상 교육수준을 가진 36.6% 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1> 배우자 유무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일반적 사항		유배우자 (n= 131)		무배우자 (n= 71)		χ ²
변인	구분	N	%	N	%	
성별	여자노인	52	39.7	55	77.5	26.368***
	남자노인	79	60.3	16	22.5	
연령	60- 70	73	55.7	16	22.5	26.655***
	71- 80	51	38.9	41	57.7	
	80세 이상	7	5.3	14	19.7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29	22.1	45	63.4	37.015***
	고등학교 이상	102	77.9	26	36.6	
동거유형	결혼한(아들,딸)	9	6.9	31	43.6	
	미혼자녀와 배우자	48	36.6	.	.	
	배우자	71	55.0	.	.	
	독신 및 기타	3	1.5	40	56.3	
종교유무	있다	98	74.8	52	73.2	.059
	없다	33	25.2	19	26.8	
월소득	50만원 이하	19	14.5	46	64.8	63.270***
	51 - 200만원	42	32.1	18	25.4	
	201만원 이상	70	53.5	7	9.8	

*p< 0.10, **p< 0.05, ***p< 0.01

유배우자 노인이 독신이거나 배우자나 자녀이외의 사람과 함께 사는 비율은 1.5%로 상당히 낮은 반면, 무배우자 노인이 독신이거나 자녀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사는 경우는 56.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의 노인의 종교유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유배우자 노인은 74.8%, 무배우자 노인은 73.2%로 배우자의 유무에 관련없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높았다.

월소득을 살펴보면, 유배우자 노인은 201만원 이상 소득이 53.5%로 가장 많았으며, 50만원 이하의 소득 노인이 14.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에, 무배우자의 노인은 50만원 이하의 소득 노인이 64.8%로 가장 많았고, 201만원 이상의 소득 노인이 9.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유배우자와 무배우자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요약해보면, 유배우자 노인에 비하여 무배우자 노인은 주로 여자가 많았고,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의 비율이 적고, 월소득 수준도 유배우자 노인들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의 평균수명은 80.44세, 남자의 평균 수명은 73.38세로 여자가 남자의 평균 수명보다 7.06세정도 높은 것으로(통계청, 2002) 즉, 여자노인들의 고연령 집단일수록 배우자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유배우자인 노인의 경우 노인부부만이 사는 경우와 무배우자인 노인은 독거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화사회가 보여주는 특징적 현상으로 핵가족화 및 세대간 동거의식 그리고 가족주의로부터 개인주의 가치관으로의 변화 등과 결부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김태현, 1999).

2)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

<표 4-2>의 조사대상자의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는 앞장에서 살펴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바탕으로 유배우자 노인집단과 무배우자 노인집단의 생활특성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4- 2>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앞장의

<표3- 4, 5, 7>과 같음을 밝힌다.

<표4-2>조사대상자의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

변 인		유배우자		무배우자		t값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고독감	고독감	1.52	.53	2.28	.68	-8.075***
성인 자녀 와의 결속도	애정적 결속도	2.52	.78	1.44	.72	9.553***
	기능적 결속도	2.66	.40	2.20	.67	5.271***
	규범적 결속도	2.14	.50	1.78	.54	4.678***
	가치관 결속도	2.40	.56	2.01	.56	4.742***
여 가 활 동	자기개발	1.93	.65	1.54	.59	4.224***
	가족중심	2.80	.84	2.09	1.37	3.935***
	종교 및 사회	2.29	1.10	1.95	1.00	2.155**
	사교오락	1.91	.39	1.69	.43	3.801***
	소일	3.00	.82	3.57	.96	-4.414***
	건강	2.42	.69	1.71	.79	6.636***
생 활 만 족 도	과거생활만족도	2.23	.54	1.51	.57	8.744***
	현재생활만족도	2.48	.47	1.79	.71	7.307***
	미래생활만족도	2.12	.57	1.50	.61	7.234***
	전체생활만족도	2.33	.47	1.65	.58	8.375***

*p< 0.10, **p< 0.05, ***p< 0.01

<표4- 2>에서 제시된 모든 변수들의 평균점수가 배우자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무배우자 노인들은 높은 고독감 점수를 나타냈으며, 자녀와의 결속도 4가지 영역에서 유배우자 노인들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여가활동 참여도는 무배우자 노인들은 소일 여가활동에서만 유배우자 노인들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생활만족도를 나타내는 변수들도 모두 유배우자 노인들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자녀와 독립된 노부부들의 생활이 늘어감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노년기 부부

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의 상실은 노인들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며, 성인자녀와의 결속도가 유배우자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무배우자의 경우에는 여자노인이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을 짐이 된다는 생각에 자녀와의 결속을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표 4-2>의 분석 결과 배우자유무가 노인들의 심리적상태(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와 생활특성(여가활동 유형, 생활만족도)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즉 유배우자 노인들과 무배우자 노인들의 생활특성이 상당히 다르며, 이러한 생활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 장에서 유배우자 노인들과 무배우자 노인들을 따로 나누어 각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생활특성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노인의 생활특성 차이분석 - 유배우자 중심으로

1) 유배우자 노인의 성별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유배우자 노인의 성별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여가활동,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4- 3>과 같다. 유배우자 노인들의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5영역과 미래 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배우자의 성별 여가활동 차이는 여자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건강의 여가에는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었으나, 소일 여가활동에는 남자노인이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가족중심적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임미숙, 1985; 최성재, 1985; 송정선, 1996) 연구결과와 종교활동에 여자노인이 사교오락의 여가에는 남자노인의 참여가 더 높다고 한정미자(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된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자노인이 유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미래 생활만족도에 여자노인은 평균 2.27점, 남자노인 평균 2.03점으로 여자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미래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김춘택, 1997 ; 정인숙, 2000)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노년기에 있어 남자노인은 사회·직업적 은퇴 후 역할상실의 변화로 생활환경의 중심이 옮겨지면서 심리적 행복감이 절감되는 반면에 여자노인은 가정속에서 또는 이웃과 친구등 주변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4-3> 유배우자 노인의 성별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변인			유 배우자		t값
			여자 (n=52)	남자 (n=79)	
고독감	고독감	M	1.57	1.49	.766
		S.D	.54	.52	
성인 자녀 와의 결속 도	애정적 결속도	M	2.52	2.51	.060
		S.D	.80	.77	
	기능적 결속도	M	2.68	2.64	.506
		S.D	.38	.41	
	규범적 결속도	M	2.08	2.18	-1.138
		S.D	.49	.50	
	가치관 결속도	M	2.51	2.33	1.857
		S.D	.54	.56	
여가 활동	자기개발	M	2.15	1.78	3.325 ***
		S.D	.63	.61	
	가족중심	M	3.06	2.62	2.996 ***
		S.D	.83	.80	
	종교 및 사회	M	2.54	2.13	2.131 ***
		S.D	1.01	1.13	
	사교오락	M	1.87	1.95	-1.158
		S.D	.38	.39	
	소일	M	2.73	3.17	-3.235 ***
		S.D	.66	.88	
	건강	M	2.58	2.32	2.054 ***
		S.D	.75	.63	
생활 만족 도	과거 생활만족	M	2.24	2.22	.248
		S.D	.50	.57	
	현재 생활만족	M	2.53	2.45	.936
		S.D	.41	.51	
	미래 생활만족	M	2.27	2.03	2.541 ***
		S.D	.49	.60	
	전체 생활만족	M	2.35	2.32	.409
		S.D	.44	.49	

*p< 0.10, **p< 0.05, ***p< 0.01

2) 유배우자 노인의 연령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유배우자 노인의 연령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여가활동,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을 살펴보면 <표4- 4>와 같다. 유배우자 노인들의 연령에 따른 고독감과 (가족중심, 소일, 건강)여가활동,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배우자 노인의 연령에 따른 고독감은 70대 노인이 1.45점으로 고독감을 가장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노인은 1.53점, 80대 노인은 1.98점으로 가장 많은 고독감을 느끼고 있었다. 연령의 증가와 함께 배우자의 상실 등으로 고독감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원영희, 1995; 박선희, 1997) 일치된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고령 노인일수록 친구 등 주변사람들과의 사별로 인하여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고독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가활동은 연령에 따라 60대에 가까운 노인일수록 가족중심의 여가활동과 건강 여가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일활동에는 80대의 노인으로 고령에 갈수록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가시간은 더 많아지지만 여가활동의 범위가 좁아지고, 고령이 됨에 따라 기력의 약화로 인하여 소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유배우자 노인의 연령에 따른 미래 생활만족도와 전체 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60대 유배우자 노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0대 노인, 80대 노인 순으로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배우자 상실, 건강약화, 사회적 참여의 쇠퇴 등으로 심리적 복지감이 저하된다고 한 연구결과와(김태현 외, 1999 ; 원영희, 1995; 장현·이철우, 1996) 일치된 결과를 나타낸다.

<표 4-4> 유배우자 노인의 연령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변인			유배우자			F값
			60대 (n=73)	70대 (n=51)	80대 (n=7)	
고독감	고독감	M	1.53	1.45	1.98	3.128 ***
		S.D	.51	.51	.73	
		D	A	A	B	
성인 자녀 와의 결속 도	애정적 결속도	M	2.57	2.52	1.95	1.973
		S.D	.79	.73	.95	
		D	B	B	A	
	기능적 결속도	M	2.66	2.68	2.51	.566
		S.D	.37	.40	.65	
		D				
	규범적 결속도	M	2.20	2.07	2.00	1.188
		S.D	.48	.49	.66	
		D				
	가치관 결속도	M	2.41	2.39	2.42	.012
		S.D	.60	.53	.41	
		D				
여가 활동	자기개발	M	1.94	1.94	1.71	.418
		S.D	.59	.72	.67	
		D				
	가족중심	M	2.92	2.68	2.28	2.637 *
		S.D	.74	.86	1.32	
		D	B	AB	A	
	종교 및 사회	M	2.24	2.30	2.78	.758
		S.D	1.07	1.06	1.67	
		D				
	사교오락	M	1.91	1.94	1.74	.840
		S.D	.39	.38	.42	
		D				
	소일	M	2.83	3.20	3.33	3.773 ***
		S.D	.71	.92	.92	
		D				
	건강	M	2.47	2.43	1.82	2.895 *
		S.D	.70	.68	.37	
		D	B	B	A	
생활 만족 도	과거 생활만족	M	2.26	2.24	1.85	1.759
		S.D	.50	.59	.64	
		D	B	B	A	
	현재 생활만족	M	2.50	2.51	2.14	1.996
		S.D	.46	.47	.61	
		D	B	B	A	
	미래 생활만족	M	2.30	1.94	1.64	9.864 ***
		S.D	.47	.61	.64	
		D	B	AB	A	
	전체 생활만족	M	2.36	2.35	1.95	2.434 *
		S.D	.45	.47	.56	
		D	B	B	A	

*p< 0.10, **p< 0.05, ***p< 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유배우자 노인의 동거유형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유배우자 노인의 동거유형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여가활동,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4- 5>와 같다.

유배우자 노인의 동거유형에 따른 종교 및 사회 여가활동과 소일 여가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 및 사회 여가활동에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노인 평균이 2.47점으로 자녀와 동거하거나 독거하는 노인의 평균 2.09보다 높게 나타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보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이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종교 및 사회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일 여가활동에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평균 2.76점으로 배우자와 동거하는 노인의 평균 3.20점보다 낮게 나타나 배우자와 동거하는 노인이 비교적 소일 여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노인은 배우자 부부만이 사는 노인보다는 배우자와 손·자녀의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 소일 여가활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배우자 노인의 동거유형에 따른 과거, 현재, 미래, 전체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표4- 5>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유배우자이면서 자녀와 함께 동거는 무배우자이면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과는 다르게 자녀와의 동거가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자녀보다도 배우자가 중요변인임을 알 수 있다.

<표 4-5> 유배우자 노인의 동거유형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변인			유배우자		t값
			배우자 (n=71)	자녀동거 (n=60)	
고독감	고독감	M	1.46	1.60	-1.555
		S.D	.50	.56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애정적 결속도	M	2.50	2.53	-.210
		S.D	.76	.81	
	기능적 결속도	M	2.67	2.64	.417
		S.D	.40	.40	
	규범적 결속도	M	2.09	2.19	-1.081
		S.D	.51	.47	
	가치관 결속도	M	2.44	2.36	.739
		S.D	.51	.62	
여가 활동	자기개발	M	1.98	1.87	.990
		S.D	.67	.62	
	가족중심	M	2.80	2.79	.072
		S.D	.86	.82	
	종교 및 사회	M	2.47	2.09	1.983**
		S.D	1.01	1.18	
	사교오락	M	1.95	1.87	1.164
		S.D	.40	.37	
	소일	M	3.20	2.76	3.275***
		S.D	.90	.66	
	건강	M	2.35	2.51	-1.252
		S.D	.59	.78	
생활 만족 도	과거 생활만족	M	2.20	2.25	-.525
		S.D	.57	.51	
	현재 생활만족	M	2.46	2.52	-.753
		S.D	.48	.46	
	미래 생활만족	M	2.05	2.21	-1.514
		S.D	.56	.58	
	전체 생활만족	M	2.30	2.37	-.924
		S.D	.48	.45	

*p< 0.10, **p< 0.05, ***p< 0.01

4) 유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유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애정적, 기능

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여가활동,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4- 6>과 같다.

유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기능적, 규범적)결속도, 여가활동 6영역,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인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고독감의 차이를 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의 고독감의 평균은 1.42점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은 평균 1.88점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고독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활동의 참여가 많아짐에 따라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고독감이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유배우자 노인들의 교육수준에 따른 성인자녀와의 결속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애정적 결속도, 기능적 결속도, 규범적 결속도 고등학교 이상 노인의 평균점수가 고등학교 이하 노인 평균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성인자녀와의 규범적 결속도, 기능적 결속도, 애정적 결속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유배우자 노인들의 교육수준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6개 영역(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여가활동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건강)여가활동에 적극참여를 하고 있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일여가활동에 참여가 높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개발,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여가활동의 참여가 높다고 한 정미자(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된 결과이고, 즉 높은 교육수준은 여가활동 참여

의 기회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탐색하는 능력이 높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변인임을 시사해준다.

<표 4-6> 유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변인			유배우자		t값
			고등학교 이하 (n=29)	고등학교 이상 (n=102)	
고독감	고독감	M	1.88	1.42	3.355**
		S.D	.69	.43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애정적 결속도	M	2.00	2.66	-3.763***
		S.D	.87	.69	
	기능적 결속도	M	2.51	2.70	-1.858***
		S.D	.53	.34	
	규범적 결속도	M	1.97	2.18	-2.008***
		S.D	.47	.50	
	가치관 결속도	M	2.27	2.44	-1.421
		S.D	.61	.54	
여가 활동	자기개발	M	1.65	2.01	-2.634***
		S.D	.63	.63	
	가족중심	M	2.41	2.91	-2.406**
		S.D	1.03	.74	
	종교 및 사회	M	2.00	2.38	-1.654*
		S.D	1.26	1.04	
	사교오락	M	1.81	1.95	-1.667*
		S.D	.40	.38	
	소일	M	3.37	2.89	2.854***
		S.D	.90	.77	
	건강	M	2.17	2.50	-2.291**
		S.D	.68	.68	
생활 만족 도	과거 생활만족	M	2.00	2.29	-2.628***
		S.D	.57	.52	
	현재 생활만족	M	2.26	2.55	-2.864***
		S.D	.49	.45	
	미래 생활만족	M	1.88	2.19	-2.610***
		S.D	.63	.54	
	전체 생활만족	M	2.05	2.41	-3.780***
		S.D	.50	.43	

*p< 0.10, **p< 0.05, ***p< 0.01

유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유배우자 노인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보다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현세대 노인들의 대다수는 공식교육을 받지 못할 정도로 교육기회에 폭이 좁았기 때문에 이러한 많지 않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들에게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5) 유배우자 노인의 종교유무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차이검증

유배우자 노인의 종교유무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여가활동,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4- 7>과 같다.

유배우자 노인의 종교유무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건강)여가활동, (현재, 전체)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들 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종교가 없는 노인보다 고독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는 종교가 주관적 심리적인 위안을 주고, 종교활동으로 인하여 사회활동 기회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노인에게 종교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인 고독감을 절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유배우자 노인들의 종교가 있는 노인의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 평균은 2.61점으로 종교가 없는 노인 2.23점 보다 높게 나타나 유배우자 노

인의 경우에 종교가 없는 노인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유배우자 노인의 종교유무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변인		유배우자		t값	
		종교 유 (n=98)	종교 무 (n=33)		
고독감	고독감	M	1.47	1.68	-1.683*
		S.D	.48	.64	
성인 자녀 와의 결속도	애정적 결속도	M	2.61	2.23	2.450**
		S.D	.73	.86	
	기능적 결속도	M	2.66	2.64	.333
		S.D	.39	.41	
	규범적 결속도	M	2.12	2.19	-.689
		S.D	.49	.51	
	가치관 결속도	M	2.43	2.32	.985
		S.D	.55	.59	
여가 활동	자기개발	M	2.02	1.66	2.801***
		S.D	.64	.58	
	가족중심	M	2.90	2.50	2.411**
		S.D	.78	.94	
	종교 및 사회	M	2.59	1.42	5.888***
		S.D	.99	.95	
	사교오락	M	1.94	1.84	1.267
		S.D	.38	.41	
	소일	M	2.94	3.18	-1.445
		S.D	.83	.80	
	건강	M	2.49	2.23	1.919*
		S.D	.66	.76	
생활 만족도	과거 생활만족	M	2.25	2.16	.777
		S.D	.54	.57	
	현재 생활만족	M	2.54	2.31	2.532**
		S.D	.45	.51	
	미래 생활만족	M	2.17	2.00	1.410
		S.D	.56	.61	
	전체 생활만족	M	2.38	2.17	2.226**
		S.D	.44	.53	

*p< 0.10, **p< 0.05, ***p< 0.01

유배우자 노인의 종교유무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족중심 여가활동, 종교 및 사회, 건강 여가활동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종교활동은 사회·심리적으로 소외감, 고독감을 겪게 되는 노인에게 역할상실에서 오는 긴 여가시간을 종교활동 이외 사회생활의 기회제공과 여가활동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배우자 노인들의 종교유무에 따라 현재 생활만족도와 전체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종교와 노인의 생활만족에 있어서 종교활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더 바람직한 삶을 영위한다고 있다는 연구결과와(김미숙·박민정, 2000; 김태현·김수정, 1996; 윤에스더, 1999)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즉 노인에게 있어 종교는 노년기의 삶에 대한 의미와 소속감 및 자아통합성을 갖도록 하여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6) 유배우자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 차이검증

유배우자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여가활동,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8>과 같다.

유배우자 노인의 소득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 여가활동 5영역(자기개발, 가족중심, 사교오락, 소일, 건강)여가활동,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종교 및 사회 여가활동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8> 유배우자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변인			유배우자			F값
			50만원 이하 (n=19)	51-200만원 (n=42)	201만원 이상 (n=70)	
고독감	고독감	M	1.86	1.62	1.37	8.018***
		S.D	.62	.62	.38	
		D	B	B	A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애정적결속도	M	1.78	2.32	2.83	19.843***
		S.D	.81	.66	.66	
		D	A	B	C	
	기능적결속도	M	2.47	2.62	2.73	3.512**
		S.D	.45	.35	.39	
		D	A	AB	C	
	규범적결속도	M	1.84	2.18	2.19	4.198**
		S.D	.50	.48	.48	
		D	A	B	B	
	가치관결속도	M	2.05	2.54	2.41	5.379***
		S.D	.60	.45	.58	
		D	A	B	B	
여가활동	자기개발	M	1.57	1.86	2.07	4.966***
		S.D	.58	.68	.61	
		D	A	AB	B	
	가족중심	M	2.22	2.74	2.99	6.830***
		S.D	1.17	.81	.66	
		D	A	B	B	
	종교 및 사회	M	2.36	2.38	2.22	.292
		S.D	1.47	1.06	1.02	
		D				
	사교오락	M	1.73	1.84	2.01	5.080***
		S.D	.41	.40	.35	
		D	A	AB	B	
	소일	M	3.36	3.17	2.80	5.175***
		S.D	.95	.89	.68	
		D	A	AB	B	
	건강	M	1.98	2.32	2.61	7.354***
		S.D	.43	.74	.65	
		D	A	B	B	
생활만족도	과거 생활만족	M	1.77	2.05	2.46	18.996***
		S.D	.55	.49	.45	
		D	A	B	C	
	현재 생활만족	M	2.11	2.34	2.67	16.747***
		S.D	.57	.48	.34	
		D	A	B	C	
	미래 생활만족	M	1.67	2.13	2.25	8.463***
		S.D	.64	.47	.56	
		D	A	B	B	
	전체 생활만족	M	1.89	2.17	2.54	23.930***
		S.D	.52	.44	.33	
		D	A	B	C	

*p< 0.10, **p< 0.05, ***p< 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유배우자 노인들의 소득에 따른 고독감의 차이를 보면 201만원 이상의

소득 노인 고독감의 평균이 1.37점으로 가장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51- 200만원의 소득 노인은 고독감 평균이 1.62점, 50만원 이하의 소득 노인은 1.86점의 순으로 노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고독감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에게 소득수준이 낮으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대인관계에 있어서 활동의 제한이 될 것으로 심리적인 고독감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배우자 노인의 소득에 따른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 기능적 결속도, 규범적 결속도는 201만원 소득 노인이 가장 결속력이 높게 나타났고, 51- 200만원, 51만원 이하의 순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결속력이 높았다. 가치관 결속력은 51- 200만원 소득의 노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10만원 이상 , 51만원 이하 소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경제적 안정은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관계를 높이고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홍숙자, 1992)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유배우자 노인의 소득에 따라 여가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개발, 가족중심, 사교오락, 소일, 건강)여가활동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은 경제적으로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배우자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소득과 교육수준은 정적인 관계가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경제상태가 양호하고, 이에 따라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활만족도가 향상되는 경향이 높다고 한 연구결과와(장현·이철우, 1986)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유배우자 노인들에게 있어 소득은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설명이 되어진다.

3. 노인의 생활특성 차이분석 - 무배우자 중심으로

1) 무배우자 노인의 성별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 차이검증

무배우자 노인의 성별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여가활동,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9>와 같다.

무배우자 노인의 성별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애정적, 기능적, 규범적)결속도, 여가활동 6영역(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여가활동, 과거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의 성별에 따른 고독감은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고독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유배자 노인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여자노인의 고독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 남자노인은 고독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배우자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배우자 노인들의 성별에 따른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기능적, 규범적)결속도가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더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배우자의 경우에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여자노인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서 자녀와의 결속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9> 무배우자 노인의 성별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변인		무배우자		t값
		여자 (n=55)	남자 (n=16)	
고독감	고독감	M	2.17	-3.070***
		S.D	.70	
성인자녀와의결속도	애정적 결속도	M	1.55	3.982***
		S.D	.78	
	기능적 결속도	M	2.31	2.757***
		S.D	.65	
	규범적 결속도	M	1.84	1.852*
		S.D	.55	
	가치관 결속도	M	2.04	.966
		S.D	.58	
여가활동	자기개발	M	1.63	3.043***
		S.D	.60	
	가족중심	M	2.37	5.998***
		S.D	1.44	
	종교 및 사회	M	2.20	6.722***
		S.D	1.00	
	사교오락	M	1.73	2.042**
		S.D	.45	
	소일	M	3.41	-2.614***
		S.D	.91	
	건강	M	1.84	3.414***
		S.D	.81	
생활만족도	과거 생활만족	M	1.57	2.044**
		S.D	.60	
	현재 생활만족	M	1.86	1.456
		S.D	.71	
	미래 생활만족	M	1.50	.230
		S.D	.61	
	전체 생활만족	M	1.70	1.315
		S.D	.58	

*p< 0.10, **p< 0.05, ***p< 0.01

무배우자 노인은 성별에 따라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여가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과 비교하여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건강)여가활동은 소극적인 반면에 소일 여가활동은 무배우자 노인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오락 여가활동에는 남자노인이 더 많이 참

여한다는 연구결과와(정미자, 1997)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유배우자의 경우에는 남자노인은 사교오락 여가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지만, 배우자를 상실한 경우에는 여자노인이 사교오락 여가활동에 참여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의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과거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유배우자 노인은 미래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유배우자와 무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여자노인이 더 높게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였다. 특히 무배우자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절망감과 사회적 은퇴 후 역할상실로 인한 주관적 복지감이 하락하여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2) 무배우자 노인의 연령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무배우자 노인의 연령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여가활동,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10>과 같다.

무배우자 노인의 연령에 따라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 (사교오락, 건강)여가활동, 미래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의 연령의 따른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는 평균 1.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노인은 평균 1.44점, 80대 노인은 평균 1.0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의 연령이 60대에 가까울수록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유배우자 노인은 연령에 따른 성인자녀와의 결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0> 무배우자 노인의 연령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변인			무배우자			F값
			60대 (n=16)	70대 (n=41)	80대 (n=14)	
고독감	고독감	M	2.09	2.28	2.50	1.395
		S.D	.72	.71	.48	
		D				
성인자녀와의결속도	예정적 결속도	M	1.76	1.44	1.08	3.571***
		S.D	.94	.67	.39	
		D	B	AB	A	
	가능적 결속도	M	2.41	2.20	1.94	1.868
		S.D	.69	.65	.67	
		D	B	AB	A	
	규범적 결속도	M	1.95	1.79	1.58	1.702
		S.D	.61	.55	.36	
		D				
	가치관 결속도	M	2.18	1.97	1.92	1.043
		S.D	.71	.51	.43	
		D				
여가활동	자기개발	M	1.78	1.49	1.40	1.849
		S.D	.70	.55	.55	
		D				
	가족중심	M	2.47	1.94	2.08	.853
		S.D	1.15	.95	2.37	
		D				
	종교 및 사회	M	2.06	1.91	1.96	.122
		S.D	1.12	.92	1.13	
		D				
	사교오락	M	1.95	1.62	1.60	3.933***
		S.D	.44	.41	.39	
		D	B	A	A	
	소일	M	3.68	3.56	3.47	.183
		S.D	1.09	.91	1.00	
		D				
	건강	M	2.13	1.68	1.31	4.523**
		S.D	.74	.80	.57	
		D	B	AB	A	
생활만족도	과거 생활만족	M	1.53	1.49	1.53	.039
		S.D	.63	.58	.52	
		D				
	현재 생활만족	M	2.05	1.72	1.73	1.324
		S.D	.74	.72	.60	
		D				
	미래 생활만족	M	1.76	1.44	1.35	2.106 **
		S.D	.64	.59	.56	
		D				
	전체 생활만족	M	1.83	1.60	1.59	.974
		S.D	.56	.61	.53	
		D				

*p< 0.10, **p< 0.05, ***p< 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무배우자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사교오락, 건강 여가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60대에 가까운 노인일수록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었다. 이는 70대 이상의 고령노인보다 60대 노인이 여가활동에 적극 참여 한다는 연구결과와(진영아, 1995)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사교 오락과 건강은 활동적인 여가이기 때문에 60대에 가까운 젊은 노인들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유배우자의 경우에는 고령 노인일수록 소일활동에 참여가 많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무배우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60대 노인이 70대 80대의 노인보다도 더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소일 여가활동에 더 많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은 연령에 따라 미래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60대에 가까운 노인일수록 미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노인들은 고령이 될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떨어진다고 한 연구결과와(김태현 외, 1999) 일치된 결과이다.

3) 무배우자 노인의 동거유형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 차이검증

무배우자 노인의 동거유형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여가활동,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11>과 같다.

무배우자 노인의 동거유형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기능적, 규범적)결속도,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소일)여가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의 동거유형에 따른 고독감 차이를 보면 독거노인의 평균은 2.64점으로 동거노인의 2.06점보다 높게 나타나 독거노인의 고독감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배우자를 상실하고 자녀동거 노인은 독거노인 보다 심리적으로 고독감을 덜 느끼게 되지만 독거노인은 심리적인 고독감이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의 동거유형에 따른 (애정적, 기능적, 규범적)결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유배우자 노인의 동거유형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유배우자 노인의 동거유형은 자녀와의 결속도에 영향력이 없지만, 무배우자 노인은 동거유형이 자녀와의 결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무배우자 노인의 동거유형에 따른 여가활동은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소일)여가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의 자녀동거 노인은 독거노인보다 손·자녀와의 가족구성원으로 가족중심 여가활동이 독거노인보다 활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배우자 노인이 독거하는 경우에는 무배우자 노인의 자녀동거 노인보다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소일 여가활동에 더 많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배우자 노인은 동거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서 자녀와 동거를 하는 노인은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은 홀로 독거하는 노인보다 자녀와 함께 동거할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에게는 동거유형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표 4-11> 무배우자 노인의 동거유형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변인			무배우자		t값
			독거 (n=27)	동거 (n=44)	
고독감	고독감	M	2.64	2.06	4.192***
		S.D	.45	.70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애정적 결속도	M	1.15	1.62	-2.930***
		S.D	.59	.75	
	기능적 결속도	M	2.02	2.30	-1.722*
		S.D	.70	.63	
	규범적 결속도	M	1.54	1.93	-3.173***
		S.D	.45	.54	
	가치관 결속도	M	2.00	2.02	-.166
		S.D	.50	.59	
여가활동	자기개발	M	1.48	1.57	-.692
		S.D	.50	.65	
	가족중심	M	1.51	2.44	-3.386***
		S.D	.72	1.56	
	종교 및 사회	M	1.68	2.12	-1.824*
		S.D	.86	1.05	
	사교오락	M	1.58	1.75	-1.626
		S.D	.41	.44	
	소일	M	4.01	3.30	3.037***
		S.D	1.03	.81	
	건강	M	1.70	1.72	-.098
		S.D	.80	.78	
생활만족도	과거 생활만족	M	1.21	1.69	-4.176***
		S.D	.35	.61	
	현재 생활만족	M	1.54	1.95	-2.550***
		S.D	.59	.74	
	미래 생활만족	M	1.27	1.63	-2.476***
		S.D	.51	.63	
	전체 생활만족	M	1.40	1.81	-3.257***
		S.D	.43	.61	

*p< 0.10, **p< 0.05, ***p< 0.01

4) 무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무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애정적, 기능

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여가활동,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12>와 같다.

<표 4-12> 무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변인			무배우자		t값
			고등학교 이하 (n=45)	고등학교 이상 (n=26)	
고독감	고독감	M	2.45	1.99	2.887***
		S.D	.61	.70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애정적 결속도	M	1.28	1.72	-2.569**
		S.D	.65	.76	
	기능적 결속도	M	2.06	2.43	-2.311**
		S.D	.69	.57	
	규범적 결속도	M	1.63	2.01	-2.655**
		S.D	.47	.59	
	가치관 결속도	M	1.86	2.26	-2.920***
		S.D	.47	.60	
여가활동	자기개발	M	1.45	1.68	-1.595
		S.D	.58	.60	
	가족중심	M	1.85	2.50	-1.921*
		S.D	.99	1.82	
	종교 및 사회	M	1.86	2.11	-1.007
		S.D	.99	1.01	
	사교오락	M	1.68	1.70	-.169
		S.D	.40	.49	
	소일	M	3.58	3.55	-142
		S.D	.98	.93	
	건강	M	1.62	1.86	-1.251
		S.D	.75	.83	
생활만족도	과거 생활만족	M	1.36	1.75	-2.899***
		S.D	.53	.57	
	현재 생활만족	M	1.64	2.06	-2.478**
		S.D	.67	.71	
	미래 생활만족	M	1.28	1.86	-3.824***
		S.D	.45	.68	
	전체 생활만족	M	1.49	1.93	-3.173***
		S.D	.52	.59	

*p< 0.10, **p< 0.05, ***p< 0.01

무배우자 노인들의 교육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기능

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 가족중심 여가활동, (과거, 현재, 미래, 전체)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고독감의 차이를 보면 고등학교 이하 노인의 평균 2.45점으로 고등학교 이상 노인의 평균 1.99점보다 높아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이 더 많은 고독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의 참여가 많아짐에 따라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고독감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무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은 교육수준에 따라 (애정적, 기능적, 규범적)결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무배우자 노인은 (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배우자 유무에 무관하게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말과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자녀와의 생각과 가치관의 갈등이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무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중심 여가활동의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이 가족중심의 여가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여가활동 6개 영역(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여가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배우자의 상실로 인하여 활동적인 여가활동이 소극적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손·자녀 등의 가족중심 여가활동에만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배우자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더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 무배우자 노인의 종교유무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 차이검증

무배우자 노인의 종교유무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여가활동,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13>과 같다.

무배우자 노인의 종교유무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소일, 건강)여가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 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종교생활을 안 하는 노인보다 고독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활동으로 인하여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안녕과 대인적 심리적인 관계가 무배우자 노인이 고독감을 지각하는 정도를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무배우자 노인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애정적 결속도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무배우자 노인과 비교하면 배우자의 상실로 인하여 자녀와의 (기능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배우자 노인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의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소일, 건강)여가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종교 및 사회 여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결과는 종교라는 변인이 같기 때문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무배우자 노인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노인보다 심리적 안녕감을 가질 수 있고 종교활동 외의 사회활동을 통하여 대인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

로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노인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13> 무배우자 노인의 종교유무에 따른 고독감과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의 차이검증

변인		무배우자		t값
		종교 유 (n=52)	종교 무 (n=19)	
고독감	고독감	M	2.14	-3.809***
		S.D	.70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예정적 결속도	M	1.57	3.867***
		S.D	.78	
	기능적 결속도	M	2.34	3.152***
		S.D	.63	
	규범적 결속도	M	1.88	3.196***
		S.D	.56	
	가치관 결속도	M	2.10	2.754***
		S.D	.58	
여가활동	자기개발	M	1.61	1.657
		S.D	.60	
	가족중심	M	2.37	4.270***
		S.D	1.48	
	종교 및 사회	M	2.25	6.682***
		S.D	1.00	
	사교오락	M	1.74	1.639
		S.D	.43	
	소일	M	3.39	-2.649***
		S.D	.91	
	건강	M	1.85	3.071***
		S.D	.82	
생활만족도	과거 생활만족	M	1.58	2.207**
		S.D	.61	
	현재 생활만족	M	1.89	1.808*
		S.D	.70	
	미래 생활만족	M	1.54	.982
		S.D	.61	
	전체 생활만족	M	1.73	1.762*
		S.D	.58	

*p< 0.10, **p< 0.05, ***p< 0.01

무배우자 노인들의 종교유무에 따라 (과거, 현재, 전체)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종교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

종교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복지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더 바람직한 삶을 영위한다고 하는 연구결과와(김미숙·박미정, 2000)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특히 무배우자 노인은 유배우자 노인보다 종교가 가져다 주는 심리적이고 복지적인 안정감이 더 높을 것으로 무배우자 노인의 미래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6) 무배우자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 차이검증

무배우자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여가활동,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14>와 같다.

무배우자 노인들의 소득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가치관)결속도,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건강)여가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들의 소득에 따른 고독감의 차이를 보면 201만원 이상의 소득 노인 고독감의 평균이 1.51점으로 가장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51- 200만원의 소득 노인은 고독감 평균이 2.11점, 50만원 이하의 소득 노인은 2.46점의 순으로 노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고독감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노인에게 소득수준이 낮으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활동의 폭이 좁아지게 되며, 심리적인 고독감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배우자 상실에서 오는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은 소득수준이 낮은 유배우자 노인보다 고독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무배우자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 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변인			무배우자			F값
			50만원 이하 (n=46)	51-200만원 (n=18)	201만원이상 (n=7)	
고독감	고독감	M	2.46	2.11	1.51	7.949***
		S.D	.61	.67	.52	
		D	B	B	A	
성인자녀와의결속도	애정적 결속도	M	1.19	1.76	2.26	11.543***
		S.D	.57	.78	.63	
		D	A	B	C	
	기능적 결속도	M	2.09	2.37	2.48	1.905
		S.D	.67	.66	.56	
		D				
	규범적 결속도	M	1.69	1.95	1.97	2.025
		S.D	.53	.52	.60	
		D				
	가치관 결속도	M	1.86	2.22	2.42	5.348***
		S.D	.47	.59	.62	
		D	A	AB	B	
여가활동	자기개발	M	1.30	1.84	2.30	16.665***
		S.D	.38	.66	.63	
		D				
	가족중심	M	1.73	2.72	2.83	4.921***
		S.D	.89	2.08	1.01	
		D				
	종교 및 사회	M	1.73	2.19	2.78	4.364**
		S.D	.90	1.05	1.03	
		D				
	사교오락	M	1.57	1.83	2.10	6.775***
		S.D	.33	.51	.54	
		D				
	소일	M	3.68	3.40	3.28	.867
		S.D	.88	1.13	1.00	
		D				
	건강	M	1.45	2.11	2.40	9.036***
		S.D	.67	.74	.87	
		D				
생활만족도	과거 생활만족	M	1.38	1.65	2.00	4.652**
		S.D	.50	.69	.38	
		D	A	AB	B	
	현재 생활만족	M	1.59	2.09	2.38	6.780***
		S.D	.67	.66	.59	
		D	A	AB	B	
	미래 생활만족	M	1.29	1.72	2.25	11.547***
		S.D	.46	.68	.59	
		D	A	B	C	
	전체 생활만족	M	1.47	1.89	2.23	8.559***
		S.D	.52	.56	.51	
		D	A	B	B	

*p< 0.10, **p< 0.05, ***p< 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무배우자 노인의 소득에 따라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가치관)결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유배우자 노인은 소득에 따라 성인 자녀와의 (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가치관)결속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노인의 경제적 능력은 자녀와의 결속도를 높일 수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무배우자 노인들의 소득에 따라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건강)여가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월소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의 금전적인 문제에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보다 폭넓고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배우자 노인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노인의 경제적 빈곤은 한시적인 생활사건이라기 보다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만성적인 생활곤경을 설명해주는 변인이며, 또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정혜정 등, 2000)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 모두에게 있어 소득수준은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명된다.

4. 배우자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표 4-15>, <표 4-16>은 유배우자 노인집단과 무배우자 노인집단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모형의 분석결과이다.

종속변수는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 전체생활만족도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4가지 중 2요인, 여가활동참여도 6영역 중 3영역만 독립변수로 하였다. 독립변수 선정에 있어서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4요인(애정적 결속도, 기능적 결속도, 규범적 결속도, 가치관 결속도)을 함께 넣는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4개 요인의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규범적 결속도, 가치관 결속도만을 회귀 모형의 독립변수로 넣었다. 또한 여가활동의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의 6개의 여가활동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여가활동 6개의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오락 여가활동, 소일 여가활동, 건강 여가활동 3영역만 회귀모형 독립변수로 넣었다.

<표 4-15>은 유배우자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동거유형, 종교유무, 소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규범적 결속도와 가치관 결속도, 사교오락 여가활동, 소일 여가활동, 건강 여가활동을 제 변인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표 4-15> 유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 관련 변인 영향력

변인	과거생활만족		현재생활만족		미래 생활만족		전체생활만족		
	B	β	B	β	B	β	B	β	
성별@(여자=1)	2.770	0.25	9.802	.101	.131	.112	3.854	.040	
연령2@(70대)	1.006	.009	8.834	.091	-.289	-.245***	5.020	.052	
연령3@ (80대)	-.110	-.045	3.606	.017	-.299	-.117	-9.8	.000	
교육1@5 (고등학교학교 이하)	.108	.082	.104	.091	3.640	.026	5.924	.052	
동거 1 (배우자동거)@	7.249	.066	.080	-.053	7.121	.006	-1.8	-.019	
종교@	1.969	.106	.125	.115	1.558	.012	.100	.092	
소득1@ (50만원 이하)	-.230	-.148	-.151	-.112	-.286	-.175*	-.197	-.148*	
소득3@ (201만원이상)	.341	.312***	.192	.202**	2.133	.018	.225	.238***	
고독감	-.158	-.154	-.320	-.359***	-.351	-3.311***	-.304	-.344***	
성인자녀 와의 결속도	규범적 결속도	2.965	.027	-7.2	-.008	9.290	.008	-1.6	-.017
	가치관 결속도	-1.6	-.016	-7.9	-.094	8.972	.009	-6.1	-.073
여가활동	사교오락	.182	.130	.275	.226**	2.280	.015	.240	.198**
	소일	-.135	-.204**	-.131	-.228***	-.157	-.225**	-.159	-.279***
	건강	-5.9	-.074	-1.7	-.024	-6.5	-.078	-4.5	-.067
Constant	2.410		2.845		3.294		2.904		
R ²	.325		.485		.369		.530		
Adjust R ²	.244		.425		.293		.473		
F값	3.992 ***		7.867 ***		4.841 ***		9.335 ***		

*p< 0.10, **p< 0.05, ***p< 0.01

유배우자 노인들의 과거생활만족도에 201만원 이상 소득, 고독감, 소일 여가활동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유배우자 노인들 중 소득이 51- 200만원인 노인들과 비교할 때, 소득이 201만원 이상인 노인들의 과거생활만족도가 높았고,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소일 여가활동을 적게 할수록 과거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앞서 유배우자 노인들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소득이 과거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소일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다른 여가활동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소일 여가활동외의 5개 영역의 여가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과 사회의 대인관계 등의 활동적인 여가활동에 활발한 참여를 하게 되면, 무의미하고 목적없이 시간을 보내는 소일 여가활동은 자연적으로 소극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제 변인들의 유배우자의 과거 생활만족도의 설명력은 32.5%였다.

유배우자 노인들의 현재 생활만족도에는 201만원 이상 소득, 고독감, 사교 및 오락 여가활동, 소일 여가활동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배우자 노인들은 현재 생활만족도에 소득이 51- 200만원과 비교하여 소득이 201만원 이상 일 때,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사교오락의 여가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때, 소일 여가활동을 적게 할 때에 유배우자 노인들은 현재 생활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들의 현재 생활만족도에 설명력은 48.5%였다.

유배우자 노인들의 미래 생활만족도에는 70대, 50만원 이하 소득, 고독감, 소일 여가활동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배우자 노인들의 미래 생활만족도에 유배우자의 소득이 51- 200만원 소득과 비교하여 소득이 50만원 이하 일 때 미래 생활만족도가 낮은 반면, 연령이 60대 일수록,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소일 여가활동을 적게 할 때에 유배우자 노인의 미래 생활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의 미래 생활만족도에 설명력은 36.9%였다.

유배우자 노인들의 전체 생활만족도에는 50만원 이하 소득, 201만원 이상 소득, 고독감, 사교오락 여가활동, 소일 여가활동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소득이 50만원 이

상 200만원 이하인 유배우자 노인들에 비해서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유배우자 노인들의 전체생활만족도가 낮은 반면, 소득이 51- 200만원인 유배우자 노인들에 비해서 소득이 201만원 이상인 유배우자 노인들의 전체 생활만족도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유배우자 노인들의 전체 생활만족도는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소일 여가활동을 적게 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생활만족도에 설명력은 53.0%였다.

과거, 현재, 미래, 전체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들을 비교해 보면, 유배우자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소득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으며, 고독감과 소일 여가활동은 영향력이 큰 변수임이 강조되었다.

<표 4-16>은 무배우자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동거유형, 종교유무, 소득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규범적 결속도, 가치관 결속도, 사교오락 여가활동, 소일 여가활동, 건강 여가활동을 제 변인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무배우자 노인들의 과거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70대, 80대, 고독감, 가치관 결속도, 소일 여가활동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무배우자 노인의 과거생활만족도는 연령이 60대 노인들에 비교해서 70대와 80대의 노인들의 과거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높을수록, 소일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과거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생활만족도에 설명력은 72.1%였다.

<표 4-16> 무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 관련 변인 영향력

변인	과거생활만족		현재생활만족		미래 생활만족		전체생활만족		
	B	β	B	β	B	β	B	β	
성별@(여자=1)	.176	.128	2.414	.014	-.144	-.099	1.871	.013	
연령2@ (70대)	.218	.187*	-3.0	-.021	-.187	-.151	3.310	.028	
연령3@ (80대)	.402	.278***	.178	.100	-9.7	-.063	.189	.129	
교육1@ (중학교 이하)	-9.7	-.081	-7.1	-.005	-.188	-.148*	-8.5	-.070	
동거 2 (독거)@	-.328	-.277	-5.4	-.037	-.271	-.216**	-.190	-.158**	
종교@	.275	.212	.180	.112	.191	.139	.207	.157*	
소득1@ (50만원 이하)	-7.6	-.063	-.188	-.126	-7.6	-.060	-.129	-.106	
소득3@ (201만원이상)	-.202	-.105	-.278	-.117	.179	.171	-.184	-.094	
고독감	-.420	-.496***	-.802	-.766***	-.357	-.398***	-.566	-.660	
성인 자녀와의 결속도	규범적 결속도	-2.9	-.028	-.136	-.104	-2.5	-.023	-.101	-.094
	가치관 결속도	.335	.322***	.243	.189*	.436	.395***	.294	.278***
여가활동	사교오락	.125	.095	9.898	.060	-9.3	-.066	.110	.082
	소일	.115	.192**	4.176	.056	3.372	.053	6.594	.108
	건강	.102	.139	4.286	.047	8.880	.114	8.664	.117
Constant	1.164		3.263		1.997		2.278		
R ²	.721		.722		.773		.805		
Adjust R ²	.652		.652		.716		.757		
F값	10.350 ***		10.370 ***		13.629 ***		16.563 ***		

*p< 0.10, **p< 0.05, ***p< 0.01

무배우자 노인들의 현재 생활만족도에는 고독감과 성인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배우자 노인들의 현재 생활만족도에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높을수록 현재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생활만족도에 설명력은 72.2%였다.

무배우자 노인들의 미래 생활만족도에는 고등학교 이하, 독거, 고독감, 가치관 결속도가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무배우자 노인의 미래생활만족도는 고등학교 이하 노인이 고등학교 이상의 무배우자 노인과 비교하여 미래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무배우자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에 비하여 독거하는 노인의 미래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감은 적게 느낄수록 성인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높을수록 무배우자의 미래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무배우자의 미래 생활만족도에 설명력은 71.6%였다.

무배우자의 전체 생활만족도에는 독거, 종교유무, 성인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배우자는 전체 생활만족도에 동거형태는 독거가 아닌 자녀 또는 기타(형제, 자매, 조카)와 동거를 할 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일수록, 성인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높을수록 전체 생활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생활만족도에 설명력은 80.5%였다.

결국, 무배우자의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사회인구학학적 변인으로는 동거가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고독감과 성인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영향력이 큰 중요한 변수임이 강조되었다. 즉, 사별을 하게 되면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는 연구결과와(이가옥 외, 1994)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들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와(김춘택, 1997; 손화희, 1998) 일치하는 것으로 성인자녀와의 결속도는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로 생활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변인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및 제언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화와 핵가족화,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앞으로 2026년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23.1%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생활특성에 따라 고독감과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노인의 다양한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서초구의 노인대학과 관악구의 종합복지관, 저소득층 노인이 주로 많이 소일하는 파고다공원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묻고 답하는 면접방법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총 202사례로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C Program(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 Win Ver 1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에 대한 단순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조사대상자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 분산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변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2요인), 여가활동(3영역)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독립변수 선정에 있어서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애정적, 기능적, 규범적, 가치관) 4요인을 함께 넣는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4개 요인의 상

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규범적, 가치관)결속도의 2요인을 회귀 모형의 독립변수로 넣었다. 또한 여가활동의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소일, 건강)의 6개의 여가활동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여가활동 6개의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오락, 소일, 건강) 여가활동의 3영역만 회귀모형 독립변수로 넣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배우자 남자노인의 경우 무배우자 여자노인에 비해서 고독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자녀와의 결속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를 상실했을 경우 여자노인에 비해 남자노인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고독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배우자를 잃은 여자노인의 경우 배우자 상실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와 관계의 변화에서 자녀와의 결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은퇴 후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는 남성중심이기 보다는 여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가족관계 또한 여성노인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내가 없는 남성노인은 자녀와의 결속도를 높일 수 있는 중간자적 입장의 아내가 없기 때문에 자녀와의 결속도가 낮다고 볼 수 있고, 무배우자 여성들보다 고독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의 성별에 따라 여가활동 차이를 살펴보면, 유배우자 노인은 여가활동에 여자노인이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건강) 여가활동에 남자노인보다 적극 참여하고 있고, (사교오락과 소일) 여가활동에는 남자노인의 참여가 높았다. 무배우자 노인은 남자노인이 소일 여가활동에만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노인

이 소일활동에만 적극 참여하는 것은 청·장년층을 사회적·직업적 역할에 기여하느라 여가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노인이 가정 속에서 자녀와 또는 이웃 친구 등 대인관계가 지속되는 특성을 나타냈지만, 반면 남자노인은 사회적·직업적 은퇴 후 역할상실의 변화로 생활환경의 중심이 옮겨지면서 심리적 행복감이 여자노인 보다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독감도 같이 증가하였고, 무배우자 노인은 60대에 가까운 노인일수록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고독감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가족과 친구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배우자와 친구들 주변 사람들과의 사별로 인하여 고독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배우자 노인은 종교 및 사회 여가활동과 소일 여가활동이 80대 고령의 노인일수록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었고, 무배우자 노인은 종교 및 사회 여가활동과 소일 여가활동이 60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이 고령일수록 소일 여가활동을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력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활동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무배우자 60대 노인이 소일 여가활동 적극 참여하는 것은 배우자 상실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에 무료하게 시간을 보냈다가, 70대에는 배우자 상실의 적응이 되어 소일활동이 가장 소극적이었다가 다시 80대는 기력의 약화 등으로 소일 여가활동에 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라 60대 노인의 미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70대와 80대의 노인들이 비하여 보다 연장된 노년기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셋째, 유배우자 노인에게 자녀동거 여부는 고독감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무배우자 노인의 자녀동거 여부는 고독감이 강력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의존성이 증가하는 노년기에 특히 배우자에 대한 상호 의존성이 중요시되는 시기에 배우자의 사별은 비록 노년기에 경험해야 하는 규범적인 사건일지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된다. 이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사별은 심각한 절망과 고독감을 수반하게 되고, 경제적·심리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게 된다. 사별을 하게 되면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독거노인은 경제적·심리적 문제로 인하여 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배우자 노인은 배우자 함께 동거를 할 때 무배우자 노인은 독거를 할 때 소일 여가활동에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은 배우자와 단들이 동거하는 경우에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여가활동의 참여가 활발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에 소일과 건강 여가활동 참여가 높았다. 무배우자 노인의 소일 여가활동은 독거일 때 참여가 높고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 및 사회, 사교오락, 건강)여가활동은 자녀동거 노인이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배우자 노인은 배우자와 자녀와의 동거 보다 배우자와 단들이 사는 경우가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이 되어 활동적인 여가활동에 적극참여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독거노인보다 자녀와의 동거노인이 (과거, 현재, 미래, 전체)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독거 생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생활에 필요한 가사노동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경제적·심리적 문제를 가중시켜 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독감을 덜 느끼고, 여가활동이 활발하며,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정적인 관계로 보다 폭넓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고독감이 감소될 수 있으며, 보다 넓은 사회·경제활동의 범위는 여가활용의 지식과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은 여가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비례하여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은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고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고독감을 덜 느끼고, 특히 무배우자 노인의 경우에 자녀와의 결속도가 높으며 여가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게 있어 종교는 심리적 위안을 주고, 종교활동으로 인하여 사회활동 기회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노인에게 종교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고독감과 소외감을 절감 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된다. 특히 무배우자의 경우에는 종교가 가져다주는 심리적 위로감과 안정감이 더 클 것이다. 역할상실로 인하여 활동의 기회가 좁아진 노인에게 종교는 사회생활의 기회제공과 폭넓은 대인관계가 여가활동의 기회를 갖게 해줄 것이며, 노년기 삶의 대한 의미와 자아 통합성을 갖도록 하여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 요인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 모두 월소득이 적을수록 고독감이 증가하였고, 소득이 많을수록 유배우자 노인은 자녀와의 결속도가 높았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여가활동(자기개발, 건강, 종교 및 사회 등)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 모두 월소득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유무에 관계없이 노인들의 심리적인 건강성을 유지하고,

전체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경제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특히 자녀와의 결속도를 단단히 유지하는데도 노인들의 경제적인 풍족함이 중요한 변수라는 결과는 노인의 경제력의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고령화사회의 노인이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해야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에 더하여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측면도 무시할 없다는 것이다.

일곱째, 유배우자 노인의 소득이 많을수록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소일 여가활동을 적게 할수록 전체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의 소득이 많을수록 소일 여가활동을 적게 할수록 과거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 많을수록,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사교오락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일 여가활동은 소극적 참여할 때 현재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미래 생활만족도에는 60대의 노인인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소일 여가활동을 적게 할 때에 미래 생활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배우자 노인은 자녀와 동거를 할 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일수록, 성인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높을수록 전체 생활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의 과거 생활만족도는 고연령일수록,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높을수록, 소일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과거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높을수록 현재 생활만족도에는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일수록 고독감을 적게 느낄수록 성인자녀와의 가치관 결속도가 높을수록 미래 생활만족도에는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고독감으로 노인 누구에게나 오는

보편적이면서 가장 큰 노인의 심리적 문제라 생각되어진다. 유배우자 노인에게는 심리적인 변인보다는 물질적 측면의 소득 변인이라든지 활동적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 변인이었고, 무배우자 노인에게는 자녀와의 동거와 자녀와의 결속도가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배우자와의 상실로 인하여 자녀에게 기대감이 커짐으로서 자녀와의 유대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년기의 일상생활에 있어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인간의 생리화학적 특성에서 볼 때 배우자 상실의 기회가 매우 높은 시기인 만큼 본 연구에서는 유배우자 노인과 무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인구학적 변인, 고독감,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여가활동)독립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봄으로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에 근거하여 노인의 생활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와 독립된 노부부만의 동거가 늘어감에 따라 노년기 배우자 생존과 부부관계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배우자 없이 생활하는 것은 노인들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배우자 노인 특히 무배우자 남자노인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남자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형식적인 충족의 일치감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 지표인 생활만족에 대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 성인지적 관점(Sex-recognized Perspective)을 충분

히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경제력이 높은 노인들이 경제력이 취약한 노인들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 노인들은 퇴직이후에 일정한 경제적인 소득이나 적절한 연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자녀가 제공하는 생활비에 의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노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의 수준은 열악한 수준이다. 우선 공적부조제도에서 제외된 계층 노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적인 여건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노인들을 위한 공적부조와 연금개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고용등대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되어야 하고, 빈곤 노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 심리사회 및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유배우자인 경우 77.9%, 무배우자인 경우 36.6%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들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오래 전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연장된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지식 재충전의 기회는 절실하며,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평균수명연장과 고령화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평생교육체계가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대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 동안 TV를 보면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들의 여가활동 실태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지적된다. 우선, 노인들의

TV시청활동에 질적으로 우수한 여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이다. TV가 노년기 여가활동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노인 대상의 전문 TV 채널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한 편이다. 이에 노인이 즐길 수 있는 교양적이며 보람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채널 신설이 요망된다. 다른 한 가지는, TV라는 매체를 통해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고, 나아가서 적극적이고 동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욕구 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흥미롭고 다채로운 여가활동을 개발해야 하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다양한 여가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노인의 여가여건, 여가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며, 근린 주거시설과 관련된 노인복지 회관 등의 여가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연구대상자와 표집상의 한계로 인해 그 제한점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제한점을 기초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는 노부모- 성인자녀 세대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노인 스스로 자아증진 및 자기통제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 동안 TV를 보면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인식의 부족으로 노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욕구 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흥미롭고 다채로운 여가활동을 개발해야 하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다양한 여가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 문화에 맞는 노인 여가 복지정책을 개발·수행하는 일은 노인들에게 생활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복지사회 구현, 사회통합 시대적 사명이다.

세째, 본 연구는 도시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도시와 지방지역을 고려하고 현 세대의 노인이 처한 사회·문화적 그들이 살아온 삶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화적 재규정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고승덕(1996).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45-54,
- 김기태·박봉길(2000).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지지망- 지역복지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1), 253-168.
-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권115-153.
- 김미숙·박민정(2000). 종교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 노년학20(2) 29- 47.
- 김성순(1991). 「현대사회 정책론」, 서울 : 홍익재.
- 김수연(1987).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수춘 외(1995).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숙자(2000). 농촌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독거·비독거 노인의 생활만족도 비교분석.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승권(1990).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교환이론적 접근」 보건사회논집.
- 김애련(2001).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인혜(1995). 노인의 고독감에 대한 형상학적 접근.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숙(1986).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종숙(1987).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진탁(1997). 도시노인의 여가활동 성향과 관광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지 「관광연구」 9집.
- 김철진(2000). 전남 영광지역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춘택(1997). 대구시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현·서승희(1987). 노인의 주거환경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7, 77- 92.
- 김태현·박재간(1988). 현대사회에서의 노년기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학회지 제 6호.
- 김태현(1986).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연구. 성신연구논문집 제23집.
- 김태현·김수정(1996). 사별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16(1)
- 김태현(1997). 「노년학」 서울; 교문사.
-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 한국노년학, 18(1), 150- 169.
- 김태현(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I). 한국노년학, 19(1)61-81
- 김효정·김명자(1995).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및 노부모- 성인 자녀간 결속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가정관리학회지 13(3) 36-46.
- 남기민(1998). 「현대노인복지 연구」 청주대학교출판부.
- 매경 ECONOMY 제 1153호, 2002.
- 박경란(1988). 노년여성의 생활만족도 연구- 장남부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미석(2002). 노년기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 지 40(5), 133-146.
- 박선희(1997). 노인의 생활 조건에 따른 고독감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윤(1999). 재가 서비스 수혜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학위논문.
- 박춘희(2002). 노인고독에 관한 질적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배진희(2002). 노년기 재혼이 지각한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2000). 연도별 노인인구 및 노인복지 예산현황.
- 보건복지부, 통계청(2003). 고령자통계(통계연보)
- 서말희·유가효(1999). 대구근교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2), 29-41.
- 서병숙(1993).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 손화희(1999). 재가복지 수혜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 고려대학교 대학원.
- 손승영·정경희(1999). 노인과 한국사회; 현대사회와 노인의 삶”, 여성한국사회연구회.
- 송정선(1996).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영희(1995). 동·별거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5(2), 97- 116.
- 유성호(1996).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 그 이론적 탐색. 한국노년학, 16(1). 51- 68.유성호(1997).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 그 이론적 탐색, 한국노년학, 16(1)

51-68.

유성호(2001). 「우리나라와 미국의 노인복지법 비교 연구-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개정과 관련된 추진과제에 대한 제안」 노인복지정책연구 통권 3호.

유영숙(1986). 자녀와의 동·별거에 따른 노인문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윤지환(2002). 「여가의 이해」 일신사.

윤진(1982). 노인생활만족도 척도제작 연구. 한국심리학회 총회 초록집.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 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선미(1991). 중·노년기 여가활동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록(2001). 자원봉사자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동인의 영향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영애(1997).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영자(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우복(199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이윤정(1994).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갈등과 우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정(1999). 노년기 전기와 후기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3), 35-50.

이형하(2000).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희범(1994). 노인의 바라직한 여가선용을 위한 고찰. 홍익논총 제 26집.
- 임미숙(1985). 도시노인의 노인정참여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활동이론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실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인협·최성재(1996). 노인복지학」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미자(1997). 광주광역시 노인의 여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순돌(2001). 노인의 가족유형과 고독감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호, 256- 274.
- 정인숙(2001). 노인의 원인귀속유형 및 자아존중감에 따른 생활만족감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황숙·조병은(2000). 홀로된 여성 노인의 자매 관계특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0(2), 197- 213.
- 진영아(1995). 노인층의 여가활동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거주노인을 중심으로. 세종대 석사학위논문.자원경영학회, 2(1), 119- 132.
- 정혜정·서병숙(1999). 전라북도 여성노인의 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혜정·김태현·이동숙(2000).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0(2) 49-70.
- 최덕경(1998). 농촌 주부의 여가만족도에 따른 가정생활복지감. 한국가족
- 최성재(1985).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노인문제. 사회복지학회지 제7호 pp. 147-165.
-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논집. 이화여대 논총(사회과학) 제49호.

- 최일섭·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 최정아(1991). 사회적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한양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최정혜(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2). 「장래인구 추계」 <http://www.nso.go.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보건복지포럼, 제 18호, 7- 17.
- 한국궤립조사연구소(1990).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 한임섭(1987).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제활동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정란(1993). 노인 교육과정 개발 실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준수(2002). 도시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22(2), 227-247.
- 홍성희(1998).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 홍성희·송정선(1997).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과학논집 제 23권.
- 홍순혜(1984). 활동 이론에 따른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홍숙자(1992). 한국거주인과 재미교포 노인의 생활만족도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숙자(1999). 노년학개론. 하우.
- Anderson, S.A. (1988). Parental stress and coping during the leaving Home transition. Family Relation, 37재인용.
- Aquilino, W. & Supple, K.(1991) Parent- child relations and parent's

- satisfaction with living arrangements with adult children live at ho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1), 3-27.
- Berg, E.C, Trost, M, Schneider,I. E. and Allison, M,T.(2001). Dyadic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of Leisure satisfaction, Leisure Time, and Gender to Relationship satisfaction. *Leisure Science*, 23, 35-46.
- Breen L. B.(1960). The Aging individual, In *Handbook of social grontology*. Ed. by C.
- Brody, E. M(1977). "Long-term care of older people : A Practical Guide, New York : Human science press"
- Bull, C. N(1975),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 A Replication Note. *Journal of Gerontology*. Vol. 30 no.1. 73-76.
- C.E. Ferrans& M. J. Powers(1985). "Quality of Life Index :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Advanced in Nursing Science* 18(1). pp.15-24.
- Corbin, J & Tait, W. J(1973). *Education for Leisure*(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Inc.
- Cowgill,D & Holms,L (1972). Aging and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Dumazedier, J.(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ew York : The Free Press.
- Gordan, M(1978) *The American Family : Past, Present and Future* N Y Random House, inc.p.350kinsry, A. Pomery. W. and Martin. C. 1948.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 :

saunders.

- Glenn, N. & McLanahan, C (1981). The Effects of offspring on the psychological Well- being of older adul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2), 409- 421.
- Hendricks & Leedham, C.A. (1992). Dependency or empowerment : toward a maral and political economy of aging. In M. Minkler & C. L. Estes(Eds), *Critical perspectives on aging*. Amityville,NY :Baywood Publishing Co.
- Havighurst, R. J& Albrecht, R (1953). *Older People*. N .Y : Longmans, Green & Co
- Havighurst· Neurgarten·Tobin(1968). "Disengagement and patterns of aging", IN B. L. Neurgarten(ed),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lish, R. A(1975). *Aging self and personality*. Late Adulteni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Caili Wordsworth Publishing company.
- Kaplan, M.(1960). *Leisure in America : A Society Inquiry*. New York : Wiley.
- Knapp, M. R. J.(1976). Predicting the Dimensions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31(5), 595- 604.
- Lemon, B, Bengtson, V, L & Peter, J. A(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Vol. 27, 511- 523.
- Mannell, R. C & Dupuis, S. (1996). Life Satisfaction in J. E.

Birren(ed). Encyclopedia of Gerontology, Vol. 2, New York : Academic Press.59-64.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0). The Women Life by Statistics.

Parsons(1964). The Kindship system of the contemporary United States, *American Anthropologist*, 45(1), 22- 38.

Reitzes, D. and Mutran, E. (1995). Activities and self esteem. *Research on Aging*, 17(3), 260- 278.

Rily. W. W & Forner. A(1986). *Aging and Society: Inventory of Reserch Finding*. N.Y : Russel Sage Foundation.

Rowe, W. and Kahn, L(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 433-440.

Russell, R.V.(1987). The importance of recreation satisfaction and activity participation to the life satisfaction of age-segregated retire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9(4), 273-283.

Suitor, J. & Pillemer, K(1987). The Presence of adult children : A source of stress for elderly couple's marri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4), 717- 725.

Tibbitt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145-162.

Ward, R. A(1979). The Meaning Of volume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to older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37(3), 438-445.

Ward, R. A & Sheman, S. R(1984). Subjective network assess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Gerontology*, 39, 93-101.

ABSTRACT

A Study on Life Traits of The Old Age and The Satisfaction of Life Style

L'm, Chang Hee

Dept. of Family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Due to the change from industrial to information technology based society and the change of economic developments, it is important for us to think of the aging society.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effect on the senior citizen's satisfaction from leisure activities or pastime, the affective ties with their sons and daughters, and loneliness in their daily life.

The target of this research is the elderly people who live in Seoul and are over sixties. And the number of this people is 202.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T-test, one-way ANOVA,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tc. SPSS PC Program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 If the elderly lose their spouse, the male elderly have more loneliness than the female, make use of their spare time, and have less proportion of social ties with other people. Moreover, the satisfaction of male's lifestyle is lower than that of female's.

II. The loneliness of all the elderly people, whether they have a spouse or not, increases as their age increases. And the affective ties with their children are higher than others for the elderly who have no spouse and close to sixties.

III. The elderly who have no spouse and live alone have much more loneliness and lower affective, functional, and normative ties with other people than any other elderly people.

IV. The desolation increased for the elderly who have a spouse and are less educated. On the contrary, as the elderly are highly educated, they have many ties with their sons and daughters. And the educated elderly people also have a higher satisfaction of their life, regardless of past, present, or future.

V. Judging from religious point of view, the elderly who have a religious belief have less loneliness. And they have a wide scope of affective bonding. On the other hand, the elderly who have no religion have affective ties with others in views of functional and normative.

VI. The less money the elderly people have, the more loneliness was present. For those with better income, it was possible to see more satisfaction of their lifestyle, and more participation in the leisure activities.

VII. For the elderly who have a spouse, comparing the variable of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lifestyle, the income is important in inspecting the variable of affecting the lifestyle of the elderly. On the other hand, for the elderly who have no spouse, lived with someone, had no religion, and had much ties with their son, they would have much satisfaction in their life.

This research aims at finding out how pastime activity, ties with their children, and loneliness affect their satisfaction of life. And this aims at providing the materials on the elderly people's life satisfaction in case of the aging society.

To summarize, the common variable between the elderly who have spouse and no spouse is a psychological loneliness, which is the universal and big mental problem for elderly people. For elderly people who have their spouse, the income and a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are important and effective variables. And for the other elderly, the co-habitation and psychological ties with their sons and daughters is very important, because of their loss of the spouse and growing the expectation to their juniors.

Thus, the role of the spouse has an important part in their life. From the physiological point of view, it is very possible for the elderly to lose their spouse. This research aims at finding out what effects (socio-populational variables, loneliness, psychological ties with their sons and daughters, leisure and pastime activities etc.) the satisfaction of lifestyle. So it has a meaning to serve as the fundamental materials for the aging society.

So I'd like to give some suggestion of policy for enhancing the satisfaction of life and understanding the elderly people's life traits.

I. Because of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at the male elderly have more satisfaction than the female have, it means that there is a differentiation in gender about the satisfaction of lifestyle, which is an index of subjective satisfaction between the expectation to lifestyle and the superficial sufficiency to it. So it is necessary to take a sex-recognized perspective view so as to improve the elderly's life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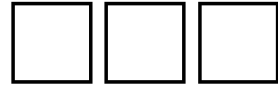
II. It is desirable to think of various projects, which is for example public subsidiary?, pension reforms, and making out social employment, etc, because the economic statue i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elderly's life satisfaction. Furthermore, it is also good to approach with new paradigm which means that without the specialty of their life it is impossible to solve the their problem.

III. It is imperative to give the elderly the chance to learn continuously because the level of education affects their life satisfaction. Above all,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should be prepared reflecting the real aging society.

IV. This research found out most of the elderly spent their daytime watching the television. Thus, it is urgent to develop the various leisure activities or programs for the elderly and to make the environment where the elderly could participate voluntarily.

< 부 록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노인의 생활을 파악하여 좀 더 바람직하고 건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무기명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개인적 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의 있게 정확히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 학과

임 창 희

2004년 9월

◆ 귀하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V표 ”를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 연세는 몇 세입니까?
1) 60-64세 2) 65-69세 3) 70-74세 4) 75-79세 5) 80세 이상

3.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1) 결혼한 아들부부 2) 결혼한 딸부부 3) 미혼자녀와 배우자
4) 배우자 5) 독신 6) 기타()

4. 귀하의 결혼관계는 어떠하십니까?
1) 결혼 (배우자 생존) 2) 사별 3) 이혼 및 별거
4) 미혼 5) 기타()

5.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습니까?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이상

6. 귀하는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7.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1) 50만원 이하 2) 51- 100만원 3) 101 - 150만원
4) 151- 200 만원 5) 201- 250만원 6) 251- 300만원
7) 300만원 이상

- ◆ 다음은 귀하의 **고독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해 주십시오.)

고독감 문항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1. 외톨이가 된 기분이다			
2.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없다			
3.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			
4. 주변의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5. 내가 필요할 때 어울릴 친구가 없다			
6.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7. 주위에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8. 대인관계는 사무적이고 깊이가 없다			

- ◆ 다음은 귀하의 **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해 주십시오.)

생활만족도 문항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1. 지난 평생을 돌아볼 때 후회 할 일이 별로 없다			
2.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적인 편이었다			
3.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복한 편이었다.			
4.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이루어 놓은 게 별로 없다			
5. 나는 지난 평생은 힘들고 괴로워서 생각하기도 싫다			
6. 요즈음 나는 살맛이 난다.			
7. 나이를 먹어보니 세상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좋은 것 같다			
8. 요즈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때이다.			
9.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한다.			
10. 매일 매일의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11.요즈음 나는 매사가 짜증스럽다.			
12. 요즈음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다			
13. 요즈음 화나는 일만 점점 더 많아진다			
14.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다			
15. 앞으로 살아가는 데 희망이 있을 것이다			
16.앞으로 내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17. 앞으로 내가 할만한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18.나는 가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 다음은 어르신과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거하거나 가장 자주 접촉하는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녀와의 결속도 문항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1. 자녀들은 외식이나 외출할 때 나를 함께 데리고 간다			
2. 자녀들과 더불어 많은 대화를 나눈다			
3. 자녀들은 집안 일이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4. 자녀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더라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와줄 능력이 없다			
5. 모든 자녀들은 나의 생일을 기억하고 찾아온다			
6. 자녀들이 여행을 갈 때면 같이 안 가게된다			
7. 자녀에게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못한다			
8. 자녀부부나 손·자녀간에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중재를 부탁한다			
9. 점차 늙어감에 따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자녀들은 나를 열심히 도와준다			
10.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점차 식어가는 것 같다			
11.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들로부터 거리감이 느껴진다			
12.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자랐고 자식들이 자랑스럽다			
13. 요즘 자녀들의 행동이 못마땅하게 느껴진다			
14. 자녀들이란 부모와는 달라서 어려운 때에는 부모생각을 덜하기 마련인데 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15. 자녀들은 예전에 비해 나에게 소홀하다			
16. 자녀들은 내가 그들을 편애한다고 불평한다			
17. 나의 자식들은 부모인 나에게 감사해한다			
18. 세대차이 때문에 자식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19. 자녀들은 내가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들만을 위해 줄 것이라 믿는다			
20. 나와 자녀들은 생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 귀하의 여가활동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즐겨하는 여가활동유형 정도는 어떠한지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 주십시오.

	여가횟수	전혀 안함	아주 가끔	보통	자주	매일
자기 개발	1. 문예활동 (시, 수필, 편지쓰기 등)					
	2. 수집활동 (분재, 악세사리, 수석 등)					
	3. 서예 / 목화 / 그림 그리기					
	4. 노래부르기 / 악기연주					
	5. 교양강좌 (노인대학 등)					
	6. 외국어 강좌(영어, 일어 등)					
	7. 컴퓨터 강좌					
	8. 독서 (책, 성경 등)					
가족 중심	9. 친척 및 자녀집 방문					
	10. 가족과의 대화					
	11. 가족과 외식					
	12. 손자녀 돌보기 및 놀아주기					
	13. 정원손질 및 정원(화초) 가꾸기					
14. 특별 음식만들기 및 간식만들기						
종교 및 사회 참여	15. 종교활동(예배, 개인적인 기도)					
	16. 사회봉사 및 사회단체 참여					
사교 및 오락	17. 영화 및 영극관람					
	18. 음악회 관람					
	19. 각종 작품 전시회관람					
	20. 각종 스포츠관람					
	21. 놀이 (화투, 게임, 바둑, 장기 등)					
	22. 사우나 및 온천					
	23. 낚시하기					
	24. 동창회·계모임·친목회 등 참석					
	25. 노인정 가기					
26. 관광 및 해외여행						
소일	27.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28. 낮잠 및 휴식					
	29. 집이나 근처공원에서 무료로게 시간 보내기					
스포츠 및 건강	30. 골프					
	31. 등산					
	32. 산보 및 조깅					
	33. 요가 및 단전호흡					
	34. 체조					